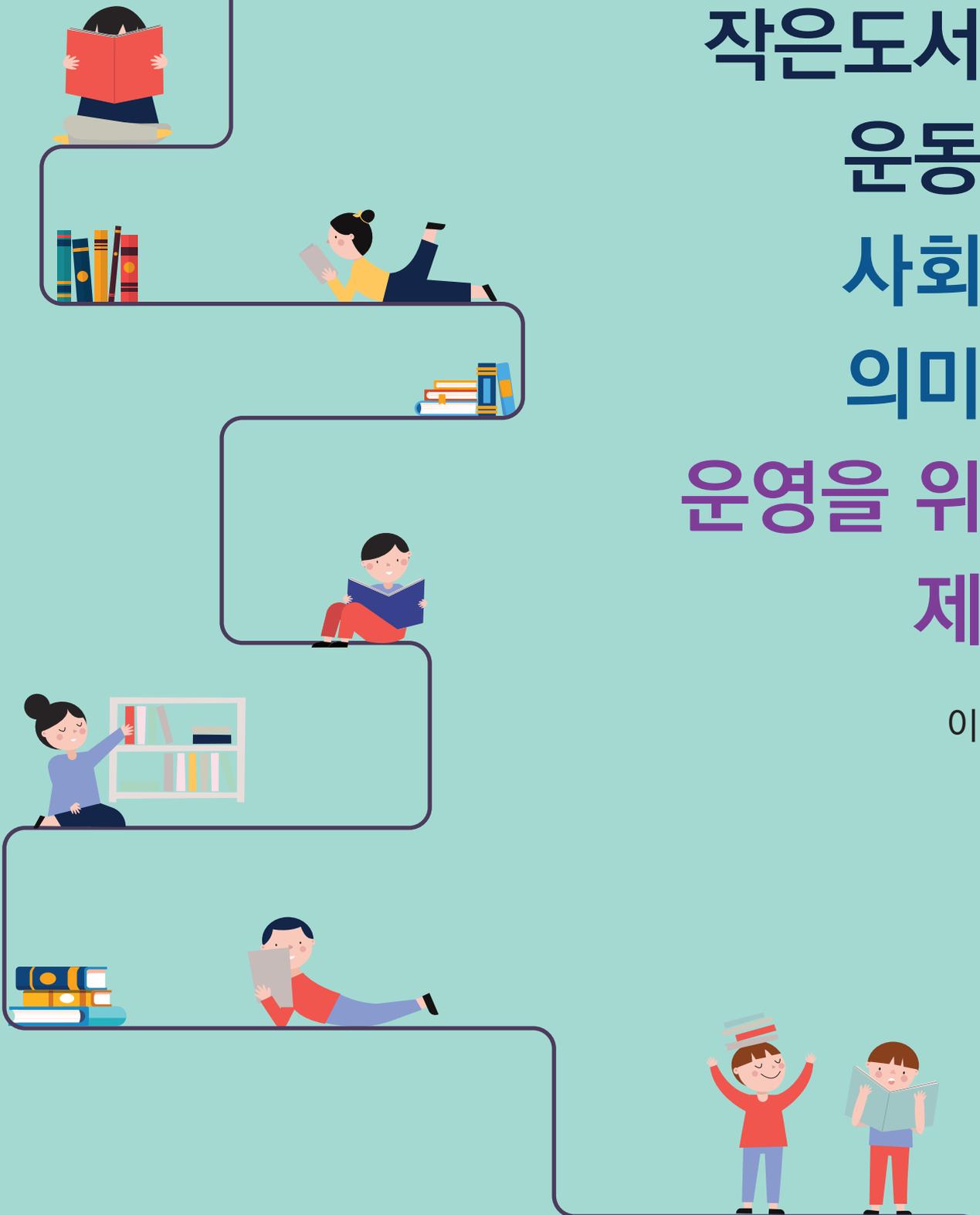


작은도서관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운영을 위한 제언

이순임



작은도서관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운영을 위한 제언



이 책은 2019년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동북권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I.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1. 도서관의 역사와 철학 8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서관의 역사
비로소 시민의 품에 돌아온 도서관
도서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다

2. 평생학습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10

살아남기 위해 평생 공부해야 하는 세대
평생학습의 기반, 도서관
도서관, 평생학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가치

3.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15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한계
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갈구
정부의 작은도서관 건립 및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II. 작은도서관의 이론적 배경

1. 작은도서관의 개념 18

2.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18

일제 강점기~1950년대 : 일방적 관 주도 시기
1960년대 : 마을문고 운동
1970년대 말 : 양서협동조합 운동
1980년대 : 민간도서관 운동
1990년대 : 작은도서관 운동의 시작
2000년 이후 : 작은도서관 운동의 확산

2. 작은도서관 운동의 이론적 근거 22

마을만들기 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사회운동론
혁명과 전투의 시대:1980년대
전문가, 그리고 시민참여의 시대:1990년대
참여연대 다음의 시민운동은?
지역사회운동론
풀뿌리 주민운동



III.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과 사회적 의미

1. 유형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비교 34
2018년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
2018년 도봉구 작은도서관 현황
2015년 도봉구 작은도서관 현황
2. 초록나라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동 사례 53
초록나라도서관 일반현황
초록나라의 문화 키워드 '품앗이'
품앗이로 조직된 도서관 교육
도서관 활동과 치유와 성장 이야기



IV.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정책 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76
현실성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재설정
작은도서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면 개정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개선 및 관리주체 규명
자치법규를 통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 등록 취소에 따른 권한 기능 강화
2.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77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작은도서관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
공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 시범 운영 및 확대
3.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 78
사립 작은도서관 대상 공립 지정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사업 발굴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내용 및 방법 개선
작은도서관 특화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 개정



V. 결 론

1.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의의82

양극화 해소

삶터 가꾸기 2

‘사랑방’ 개념의 지역공동체 이루기

2. 진단과 처방83

시설환경

장서

도서관서비스

정책추진

운영분야

기타 홍보

별첨자료 86

참고문헌 102



I.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1. 도서관의 역사와 철학
2. 평생학습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3.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1 도서관의 역사와 철학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서관의 역사

최초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도서관은 BC 650년경 앗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의 왕궁에 왕 개인의 장서와 명상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설립자는 티클라트 필레세르 1세로 세계 최초 도서관 설립자이다.(위키피디아)

현대 도서관의 효시는 기원전 250년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피루스 문서보관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전 세계의 지식을 모으려는 원대한 목적 아래 도서관 장서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당대 최고의 학자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해 모든 학문 분야의 뛰어난 작품을 기록한 목록을 만들었다.

로마시대에는 귀족과 극장 경영주의 개인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시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구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관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문화 전성기에 도서관이 발달하였고, 명나라 사립도서관 천일각은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 현대 도서관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학문연구 기관인 경당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부터 도서관이 발전했는데, 경당 터에서는 죽간 형태의 책이 발견되기도 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학자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대학도서관이 출발하였다. 프랑스 파리대학교도서관, 영국 칼리지도서관, 미국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이 발전해 나갔다.

프랑스는 여러 도서관을 흡수하여 대규모 국가도서관을 탄생시켰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뛰어난 관장들을 영입하여 미국이 세계 도서관의 흐름을 주도하게 했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가도서관이 발달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진화했고,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지원센터로 변화 발전해 갔다.

초기 도서관이 언제 세워졌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주목해야 할 것은 책과 도서관이 한정된 몇 사람들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곧 도서관이 일반 대중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로소 시민의 품에 돌아온 도서관

도서관이 지금의 도서관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대략 17세기경이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독점되었던 책과 도서관이 시민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프랑스의 가브리엘 노테를

시작으로 근대 도서관 사상이 싹틔었는데 근대 도서관 정신은 중립적 시각에서 책을 수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무료로 시민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정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위대한 개념은 당시 대단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많은 수의 왕실도서관과 수도원의 책들이 시민국가에 몰수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에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개화사상가 유길준은 1895 『서유견문』에 다양한 책을 보관하고 읽게 하여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곳이라고 도서관을 소개하였다. 이는 훗날 경성도서관을 설립한 이범승 등의 민족도서관 설립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는데, 1906년(광무10년)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기록될 뻔했던 '대한도서관'이 결실을 보았다면 아마도 우리사회 도서관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른 진일보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을사늑약 이후 국권이 피탈되면서 1911년 5월 조선 총독부에 의해 몰수당한 책이 당시 10만 권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도서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다

버락 오바마가 당선인 시절 한 도서관에서 연설하면서 도서관을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위한 싸움의 최전선'이라고 표현했다. 사실 미국 도서관 철학의 기저에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축소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수정헌법1조가 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알권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민주주의적 가치, 곧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정신이 투영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사재를 털어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을 통해 대중의 알권리를 지키며 깨우친 백성들과 함께 독립을 이루고자 헌신했던 선조들, 우리의 선조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도서관이 시험을 위한 공부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평생학습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

살아남기 위해 평생 공부해야 하는 세대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 보관이나 정보 접근 기능을 넘어 정보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공간, 사회 통합과 지역단위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주5일제, 지식정보화, 고령화사회,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시대적, 국가적 요구와 불가가분의 역학관계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나의 인생은 철길 아래에 자리 잡은 파크가에서 시작되었다. 어쩔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지저분한 할렘에서 내 인생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 있었다. 나는 마치 동물처럼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면 서서히 목이 졸려 죽을 것만 같았다. (중략) 나는 135번로의 도서관을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은 찾아가서, 그곳의 모든 것을 읽었다. 나는 책들이 마치 희한한 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구 읽었다. 나는 책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도 더 큰 세계를 찾게 되었다. 어떤 맹목적이면서도 본능적인 방법으로, 나는 그 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내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책과 내가 본 인생,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제임스 볼드윈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다.”

-빌게이츠

“나는 주중 5일 동안은 함부르크의 유명한 시립도서관에서 저녁시간 대부분을 보냈다. (중략) 나는 독일어와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된 책을 읽고 읽고 또 읽었다.”

-피터 드러커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겉으로는 나름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안으로는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 고독감, 내적 조화의 결핍,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에 대한

갈망 등으로 괴로웠다. 개인적인 삶에 대한 물음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과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와 세상에 대한 이 지독한 혼란스러움. (중략) 그해의 내 목표가 100권의 책을 읽는 것이었다. 100권의 책을 통해 100명의 스승이 전하는 답과 메시지를 만날 것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리라. 더이상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깊은 평화를 얻으리라. 나는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이순임 외, 『치유와 키움』

인용문은 도서관과 책읽기가 사람을 키우고, 그의 운명을 좌우하고, 의지할 곳 없어 절망하는 이에게 든든한 ‘구원의 힘’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도서관은 인류 사회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며 근대사회의 훌륭한 유산이다. 인류의 위대한 지적 산물은 도서관에 모이고 보존되고 활용되며 근대에 이르러 도서관은 만인을 위한 중심광장으로 정립되었다.

도서관은 학교와 달리 찾아오는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말없이 맞이한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며,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즉 도서관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성장한다. 사람을 지식이나 재산, 신분이나 피부색에 따라 재단하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좋은 책을 골라 사람들이 지혜의 숲을 거닐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

선배의 빛난 입시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위한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중략)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척하는 학생정신을 드높인다. 이기정신에 투철한 입시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모아 즐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

-「고교교육현장」, 작자 미상, 인터넷 펌글

우리는 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대부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대관절 ‘나눔과 소통’이나 ‘비폭력이고 평화적인 언어사용법’, ‘협력하는 생활’, ‘차이 받아들이기와 다양성 즐기기’, ‘부끄럽지 않은 성’, ‘조건 없는 사랑 이해하기’ 같은 과목들은 어디에 있는가? 또 ‘유구한 삶 꾸리기’, ‘책임 있는 경제’, ‘집단의식’ 같은 강좌는? 읽기와 쓰기, 셈하기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대신 삶에 필요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가?

기성세대인 나는 ‘고3까지만 죽어라고 공부한 세대’로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세대’로서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채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느라 바쁘다. 낙오할 수 있다는,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주부들은 수많은 부모교육강좌, 자녀학습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쫓아다닌다. 학교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다. 직장인들도 독학이나 학점은행 등으로 학위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학력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력서를 내보여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쉼도, 휴식도, 삶에 대한 성찰도 없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인간이 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 학력이나 자격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평생학습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학습해야 할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다.

평생학습의 기반, 도서관

미래사회에서 경제력의 크기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질이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그가 지닌 지적 능력이 될 것이다. 단순히 무엇을 알거나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며 그것을 종합하고 재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경제력의 원천이 된다.

미래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낳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유산과 가정환경 그리고 육체적·정신적·감성적 능력의 차이보다는 배우고 판단하고 새롭게 만들고 종합하고 재구성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의 차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사회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면 개개인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배워 알고 만들며, 아는 것을 종합하거나 재구성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활용할 줄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교육과 훈련에 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메가트렌드 코리아』

위 인용문은 창조적 사고력에 대한 것이다. 창조적 사고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지혜 두 가지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월남전에서 죽은

병사의 수보다 많은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물질적으로 살 만하다고 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터에서 우리를 유의미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배움이 필수라면 지식과 지혜를 함께 생각하는 배움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희망의 인문학』에는 노숙자들이 인문학 학습을 통해 삶의 희망을 갖게 된 사례가 실려 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작동방식,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도서관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을 창조해 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모여 있는 곳이다.

도서관, 평생학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의 가치

평생학습은 학교 교육과 달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삶 속에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녹아 있는 학습이다. 평생학습의 핵심적 요체는 자발성과 일상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에 의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평생학습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도서관을 평생교육의 핵심기관이라고 생각했던 앤드루 카네기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는데 ‘스스로 돕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는 자신의 신조에 가장 알맞은 기관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하였다.

이런 생각의 바탕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시민이 자유롭게 책과 삶을 만나서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자 장소로서, 사람들이 모이고 어울리면서 배움과 토론의 관계를 만드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발성과 일상성의 조건을 갖춘, 평생학습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것이다.

미국도서관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

1. 맥도널드보다 공공도서관이 더 많다.
-2006년 우리나라는 롯데리아가 더 많다.
2. 도서관에서 매일 다루는 자료가 페덱스(미국 국제우편 및 화물운송사)의 하루 물류량보다 많다.(도서관:540만 권, 페덱스:530만 건)
-미국 의회도서관의 1년 자료구입비는 80억 원, 한국 국회도서관 1년 자료구입비는 18억 원. 한국 국회도서관 장서는 218만 권, 미국은 1억 2772만 권이다.
3. 공공도서관의 회원은 아마존 회원의 5배 정도이다.
-비교할 자료가 없다. 비교하지 않고도 상상할 수 있다.
4. 미국인들이 도서관에 가는 횟수는 극장에 가는 횟수의 2배가 넘는다
-2006년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 31명만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5. 미국인들은 스낵바에서 보내는 시간의 3배 이상을 도서관에서 보낸다.
-한국 성인의 일반도서 독서시간은 평일 37분, 주말 34분, 일반도서 독서량은 연간 11.9권, 한 달 1.5권.
6. 전국 도서관에 소장된 책은 160억 권 정도이다.
7. 한 해에 판매되는 스포츠 티켓은 2억 400만 장이지만, 도서관은 매년 11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찾는다.
8. 1년 동안 학교도서관 미디어센터는 15억 차례 이상 이용된다.
9. 미국인은 집에서 비디오게임을 하는 시간의 7배를 학교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데 사용한다.
-한국은 집에서 학교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다.
10. 대학 사서들은 매년 9,700만 건의 참고 질의에 답을 한다.
-한국은 사서가 1명 있는 대학교가 태반이다(심지어 없는 곳도 있다).

-문화관광부 2007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참조

평생교육 정책의 이념적 기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생애에 걸쳐' 전 국민을 위한 생애 학습기회의 확충과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관점에서의 전생애적 평생교육 정책 수립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UNESCO의 평생교육 이념은 ‘존재를 위한 학습’으로서 알기 쉬운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학습을 기둥으로 삼는 인본주의적 학습사회론에 근거한다. 보통 사람이 자기 삶의 내용과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주체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균형 잡힌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시대가 흐르면 서 도서관은 자료저장소에서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활동의 중심공간이 되고 있다. 도서관은 평생학습사회에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이 이미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한계

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편하게 찾아가서 독서를 하고, 정보를 얻고,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주로 각자의 책을 가지고 시험을 위한 암기공부를 하는 거대한 독서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라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향유하는 소통과 열림의 공간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은 주거시설과 떨어져 있을 경우 이용률이 크게 낮아진다. 선진국과 달리,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권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공공도서관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전문적인 서비스나 접근성은 나아지지 않아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에 아직 수적으로 열악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현실과 이상 간의 간격을 줄이고자 1990년대 들어서 도서관을 세우려는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책문화 운동, 지역주민 운동, 공동체 운동 등 다양한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기에 작은도서관 운동”이라고 정의했다.(박미라, 2012)

작은도서관 운동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수적인 열세를 해결하여 지역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도서관을 공부방이나 독서실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을 바꾸어 '도서관은 세상의 온갖 지식과 사상, 시대, 문화, 삶의 이야기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고 역사와 미래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토론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바람직한 도서관 문화를 형성해 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박영숙, 2014)

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갈구

지난 수십 년 간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결핍으로 민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도서관 운동이 전개되었다. 1960~1970년대 마을문고 운동, 1980년대 도서원 운동을 거쳐 최근의 사립문고, 어린이도서관 건립 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인과 단체가 민간 차원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을 가꿔왔다.

특히 최근 몇 년 간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시민단체와 언론이 적극 나서서 수행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곳곳에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었으며, 어린이도서관의 존재 가치와 설립 취지가 우리 국민 사이에 비교적 넓게 인식되었다. 이 모든 것은 독서실이 아닌 진정한 '도서관'을 우리 국민이 갈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정부의 작은도서관 건립 및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2004년 6월 문화관광부가 「문화비전21:창의한국」에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1만 개 작은도서관 운동'을 제시한 이래 2005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 복지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2006년 1월에는 마을 단위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정책과제로 지정되었고, 2006년 2월에는 대통령 보고로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 점검 보고」가 제출되었다. 2006년 11월에는 「작은도서관(문고포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발표되었다. 2007년 11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에서 7권의 작은도서관 총서를 발행하여 작은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보급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정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학계에서도 작은도서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작은도서관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았다.



Ⅱ. 작은도서관의 이론적 배경

1. 작은도서관의 개념

2.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3. 작은도서관 운동의 이론적 근거

1 작은도서관의 개념

고먼은 도서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도서관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커뮤니티의 중심, 도시에서 방문할 가치가 있는 좋은 장소, 성장기 어린이에게 친숙하게 기억되는 곳, 외롭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위안처, 모두가 환영받는 곳, 지식에 기반한 힘의 원천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남태우, 2013)

작은도서관 운동을 통해 추구하는 작은도서관의 가치와 역할도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마을사랑방, 책놀이터, 아늑하고 편안한, 사람 냄새 나는,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으로 정의될 수 있다.(박영숙, 2006)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정책과 행정주사 김준은 작은도서관을 조사하고 취재한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만나면서 내내 느꼈던 점은 그들은 단순히 운영자이기 이전에 ‘운동가’들이었으며, 작은도서관을 ‘운동’ 개념으로 보는 것이 실제 작은도서관의 모습에 더 가깝다.”

2006년 작은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연구를 진행한 남영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설 중심’보다 ‘운영 중심’의 특성을 강조했다. 지역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지역문화의 발전, 정보의 평등화를 통한 계층 양극화 완화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작은도서관을 도서관이나 문고 같은 ‘시설’ 개념이 아닌 ‘운동’ 개념으로 보았다.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작은도서관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국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의 ‘문고’를 대신하여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개념화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제도화하였다.

2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

일제 강점기~1950년대 : 일방적 관 주도 시기

1906년 최초로 대한도서관이 설립되었지만 대한도서관은 1925년 조선총독부 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조선총독부는 공공도서관을 일본의 황국식민화 정책을 펼치는 거점으로 활용하

였다.

대한제국 시기 평양의 유지와 지식인이 세운 '대동서관', 일제강점기에 윤익선과 이범승이 세운 '경성도서관' 등 개화기 선각자들이 대중도서관 설립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조선 총독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1960년대 : 마을문고 운동

오늘날 작은도서관 운동의 뿌리는 1960년대에 시작된 임대점의 마을문고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문고 운동은 농촌 계몽형 도서관 운동이었다.

1961년 임대점은 '마을문고보급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마을문고 설치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때 마을문고 개념은 정규 도서관의 축소 형태였다. 즉 마을문고는 세 가지 기본 요소(책을 넣어 관리할 수 있는 책장, 주민으로 구성되어 문고 운영을 맡는 독서회,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선정도서)로 구성되었다. 1961년 한 해 동안 설치한 문고는 26개이고, 1973년에는 3만 개가 넘었다. 또한 『마을문고』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고 문고지도자와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자금난으로 인해 1980년대 초 새마을운동본부에 흡수되었고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해 20~30대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도시로 유출되고 농촌공동체가 붕괴됨에 따라 마을문고 운동도 쇠퇴하였다.

1970년대 말 : 양서협동조합 운동

1970년대 말 부산에서 시작된 양서협동조합 운동은 도시형 지식공동체 운동으로 80년대 노동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각종 시민운동, 90년대 창원의 마을도서관 운동, 사립문고 운동, 어린이도서관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도서관 운동과 독서문화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서협동조합은 '지식의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주로 진보적 지식인들이었다. 대표적인 곳으로 부산 양서협동조합, 경남 양서보급회, 서울 양서협동조합이 있었다.

1980년대 : 민간도서관 운동

1980년대 국내 도서관 운동의 진원지가 된 '도서관'은 양서협동조합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

데, 노동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도서관’과 지역사회 주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도서관 운동의 출현 배경은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의 고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 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대중 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책을 통한 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도서관이 지역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 노동도서관

부산 아름도서관, 햇살도서관, 광장도서관, 거제 일사랑, 서울 구로 한빛 등

▶ 주민도서관

서울지역주민도서관(푸른 소나무도서관대여실, 책읽는 마을, 난곡 주민도서관 등), 남해 책사랑 나눔터, 마산 책사랑, 창원 대방마을도서관, 마산 내서마을도서관, 대구 새벗도서관 등

1990년대 : 작은도서관 운동의 시작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민간도서관 운동은 제도권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 1990년대 들어와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1993년에 발족한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이후 전국 조직으로 발전했다. 이 협의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마을문고조례제정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인표어린이도서관 설립, 좋은 책읽기 가족모임활동,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및 어린이도서관 운동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2000년 이후 : 작은도서관 운동의 확산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작은도서관 운동이 비약적 발전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운동의 확산의 계기는 책읽는사회국민운동이 주관한 ‘기적의 어린이도서관’ 프로젝트였다. 임대주택의 마을문고 운동은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인데 반해 양서협동조합과 그 이후 전개된 작은도서관 운동은 전국의 다양한 운동가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는 수평적인 운동이라고 하였다. 그는 도서관문화에 대한 결핍을 느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공동체 차원의 도서관문화를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민간의 도서관 운동은 무엇보다도 사상적·지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이용재, 2013)

빌게이츠를 있게 한 동네의 작은 도서관

나는 다섯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참 많이 고민했다. 잘 크면 그만이지만 경쟁에서 낙오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엄마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땅에 누워 거름이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들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며 적당한 리더십까지 겸비한 사회가 바라는 우등생과 모범생을 키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숨막히는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사교육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도서관,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

삶의 지혜를 배워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힐 수 있는 도서관,

정보에 강한 아이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도서관,

가장 좋은 학원이자 실력 있는 과외선생인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그곳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삶을 곱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자! 그럼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 아이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틀림없이 너무 멀다. 그리고 서비스는 더더욱 마음에 안 든다.

유모차도 어린아이도 제지하는 도서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살벌한 도서관,

물어봐도 대답 없는 권위적인 나 몰라라 도서관,

공무원 퇴근시간 맞춰 어김없이 철커덕 문 닫는 도서관,

그것이 지금 우리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던가.

‘책 보고 싶으면 제 돈 내고 사서 봐야 하는 나라’

그곳에 사는 국민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일이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인생을 바꿨듯이 나도 작은도서관에서 인생의 2막과 3막을 계획하고 그 내용을 채운 바 있다. 우리 아이도 책을 통해 인생의 선배들이 주는 소중한 가르침을 받길 원한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도봉구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평등한 지식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리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생겨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이순임 외, 2007)

3 작은도서관 운동의 이론적 근거

우리는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빈부격차, 갈등, 자살, 물질만능, 안전불감, 학교폭력, 무한경쟁, 환경오염, 실업,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맛이 나는 정겨운 사회, 서로 돕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한창이다.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 활동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작은도서관에 다양한 영감과 활력을 불어일으켰다.

마을만들기 운동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 시설물 만들기, 생활환경을 살피고 가꾸기, 이웃과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 형성하기, 참여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주민으로 자리매김하기 같은 마을만들기 운동의 내용을 모아 그 성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마을만들기는 ‘삶터 가꾸기’다

마을삶터(생활환경)를 주민들(시민, 이용자)이 나서서 가꾸는 일이다. 생활에 고통과 불편을 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공용공간이나 시설을 만들어 가는 일이다.

▶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이루기’다

마을공동체(주민조직)를 만드는 일이다. 공유공간에서 벌어지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하며,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의 경로와 활동체계를 만들며, 주민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일이다.

-마을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다

책임감 있고 자격 있는 건강한 마을사람을 기르는 일이다. 자기 공간에만 집착하던 개개인이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다.

▶ 삶터 가꾸기, 공동체 이루기, 사람 만들기라는 목표

- 새로운 공간이나 장소, 시설물을 만들어내는 일
-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는 일
-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
- 마을의 역사와 문화, 전통, 사람들에 대한 탐구와 관심 속에 마을의 뿌리를 찾고, 공동체성을 확인하여 마을을 사랑하고, 주민의식을 강화하며 마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
-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 발전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마을사람을 기르는 일(김소희, 201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작은도서관은 책과 사람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 발굴 및 질적 성장,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마을의 주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기 마을공동체 사업기간 동안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마을,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이라는 비전으로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다. 마을의 첫발은 그렇게 주민을 찾고 만나고 함께 성장하며 마을을 경험하는 일들로 채워졌다. 그 결과 서울에는 14만 명의 주민이 등장하여 서로 협동하며 마을살이를 해나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동네마다 마을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마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졌고, 주민의 마을살이는 정책과 제도의 영역에서 더욱 확장돼가고 있다.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전국적 확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이 권한을 가진 조직과 주체로 성장하는 변화를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정책도 빠르게 변화, 발전해가고 있다.

▶ 숫자로 보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수	최소 128,743명, 최대 230,000(2012~2015년 기준)
투입예산	총 63,754백만원(2012~2015년 기준)
지원사업수	4,978개(2012~2015년 기준)
주민모임수	3,509개
커뮤니티공간수 (2017)	찾동활력소 12개, 마을활력소 3개, 우리마을공간 100개, 마을예술창작소 40개, 마을기업 95개
마을활동가수 (2016년)	광역중간지원조직 59명, 자치구마을지원센터 105명, 마을강사 60명, 마을사업 전문가 67명, 마을계획 촉진자 49명, 마을지원활동가 407명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마을센터 24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추진지원지원단 20개, 서울시주민자치시범사업 자치구주민자치사업단 4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참여동 (2017년)	마을계획동(1~3단계) 55동, 참여동(1~3단계) 342동, 마을계획 의제수(1~2단계) 760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목적과 목표

□ 목적: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의 실행동력 형성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할 주민주체(새로운 주민모임, 풀뿌리-시민모임)발굴과 지원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실행동력 형성으로 지방자치 실현

□ 목표: 주민의 생활자치 경험으로 주민 공공성 확산

- 목표1: 주민모임 활성화로 주민 간-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회복과 치유경험
- 목표2: 지역발전의 공공적 주체를 자치구 주민모임에서 발굴하고 지원

□ 추진방향

- 자치구 주민주체의 역량과 지역 형편에 따라 차별적 지원
- 지방(광역/기초)정부는 행정전달체계(조직/예산)구축,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지원체계 구축
- 씨앗기(점/주민등장촉진)-실행기(선/주민모임조직화)-성장기(면/시민권력발휘)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참여역량형성과 권한부여

▶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구상

기존 정부주도 마을만들기 정책문제점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구상방향	서울시 마을사업 지원 3대원칙	
간막이 행정 (중복과 경쟁)	주민주도 행정혁신	자립지원	당사자주의 보충성의 원리
형식적 민관협력		맞춤형지원	마중물지원(기초지원) 불쏘시개지원(활동지원) 다지기지원(인프라지원)
조급한 성과주의		인큐베이팅지원	사전지원 실행 및 사후지원 평가모니터링

▶ ‘시민참여의 사다리’로 분류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참여효과/목표		주민참여(주도)역량		지원사업구조
8	시민통제	지방자치 주민자치 실질화	주민이 스스로 입안-결정-집행-평가 일체를 컨트롤함	주민조직화 성장기 민관협력/협치 (면)
7	권한위임		주민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행사, 집행에서도 강한 권한행사	
6	공동협력		관리 결정권을 가지지만 주민의 필요와 힘으로 협상가능	
5	회유	주민의 공공성 강화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나 최종판단은 관이 함	명목적 참여
4	협업		관이 개최한 공청회, 집회, 회의에 형식적인 참여유도	
3	정보제공		민관의 상호환류 없이 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2	치유	신뢰관계형성 (민민/민관)	주민의 불만을 관이 실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참여해 해소 치유함	비참여
1	조작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의 존재를 아는 데 의의가 있고 관이 주민을 교육 설득하고 참여시킴	

(최순옥, 2017)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이 마을을 위해 역할을 자임하게 됐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균형성을 인식하고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웃이 늘어났으며 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원리가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주민주도’라는 것이다. 행정주도의 지원정책에서는 주민이 동원되어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기 때문에 낮은 지속가능성, 취약한 민간 자율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 예산지원을 통해 주민 모임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성을 갖출 때 자치적 해결력을 갖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율적인 참여와 시민의 권한과 관련하여 낮은 단계에서는 관이 주민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관이 실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참여시켜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주민의 필요와 힘으로 관과 협상이 가능한 단계에서는 주민이 정한 계획에 대해 주민이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스스로 입안, 결정, 집행, 평가 일체를 컨트롤하는 시민권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 지역사회, 행정이 무언가를 함께 기획하고 결정하며 시행과정에 참여하는 이상적인 과정을 그려볼 수 있다. 아직은 관행적·수직적 위탁관계 속에서 주민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자문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이지만 협치와 혁신의 원리를 시정의 다양한 부분에 접목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주민이 행정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상호신뢰에 기반한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치를 확산시키고 행정과 민간의 파트너십이 정착되어야 한다.

신사회운동론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통일되어 있던 사회 운동이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 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국가의 점진적 민주화, 일상생활의 분화와 쟁점의 다원화(환경, 여성, 인권, 세대, 탈권위주의, 소수자 등) 속에서 시민사회의 구성과 갈등 양상이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 그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의 성격, 위상, 전망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왔다. ‘계급’ 중심의 제도정치에서 벗어나 탈물질주의, 탈권위주의, 생태주의, 반전평화, 반핵, 남녀평등, 소수자 인권, 공동체 등 다양한 가치와 쟁점을 중심으로 분출된 신사회운동은 기존의 계급 중심적 제도정치에 급진적으로 도전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를 추구했다(장세훈, 지역사회운동 조직화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알린스키 모델의 한국적 재해석, 한국연구재단, 2018)

신사회운동은 1960년대까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노동 운동과 정치 운동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70년대에 이르러서는 반핵환경 운동, 반전평화 운동, 코빈 운동, 여성 운동 등 이전의

사회 운동과는 성격이 다른 'New Social Movement'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버마스의 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운동의 쟁점에서 구사회 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계급 운동, 노동 운동과 같은 구사회 운동이 계급적·경제적 불평등이나 노동, 복지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 신사회운동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과 권위주의적·관료제적 지배에 따른 병폐와 시민적 자율성의 침해에 대한 저항, 탈물질주의적 삶의 질과 대안적 삶의 추구, 다양성과 정체성의 인정 등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 운동, 여성 운동, 평화 운동, 소수자 운동, 공동체 운동 등은 이러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운동이다.

둘째, 전문직, 자유직에 종사하는 신중간계급이 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되었다고 본다. 구사회 운동이 노동자계급을 중심 주체로 삼아 경제적 분배의 개혁을 추구했다면, 신사회운동은 전문직, 자유직 등의 신중간계급과 학생, 여성,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의 인정을 추구했다.

셋째, 운동의 발생 배경과 이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사회 운동이 공업적 발달의 단계에서 자본주의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추구했다면, 신사회운동은 자본주의가 소비, 서비스, 지식, 정보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기를 배경으로 발생했다고 본다. 공업적 발달과정에서 기술관료적 지배, 물질주의, 성장주의의 확산 등에 따라 각종 사회 문제가 생겨났고 사회적 요구들이 분출되었던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과 자본-노동 간 계급타협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계급정치 체계가 물질적 분배의 개선을 제공하면서도 관료주의적 국가개입을 확대시켜 시민적 요구와 문화적 자율성을 억눌렀다. 신사회운동은 이러한 관료주의적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요구와 가치들을 배경으로 분출된 것이다.

신사회운동은 전후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물질적 풍요라는 혜택을 입은 세대들과 물질적 제약에서 자유로웠던 신중간계급과 주변층이 기존의 계급적 쟁점 중심의 관료주의적 제도정치가 포섭하지 못한 여성, 반핵, 환경, 반전평화, 소수자 인권 등 새로운 쟁점들을 제기한 사회 운동이었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은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항의, 점거, 거리시위 등 급진적인 행동을 추구한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정태석, 2018)

혁명과 전투의 시대:1980년대

세계가 동지와 적으로 구분되던 시대가 바로 80년대였다. 세계는 미국과 소련으로 나뉘어서 냉전 중이었고, 한반도는 남과 북이 치고받았다. 한국 사회도 군부독재와 민주화세력, 자본가와 노동자, 친미세력과 반미세력으로 나뉘어 매일 전투를 벌였다. 아我和 비아非我로 편을 정확하게 가르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 운동의 주된 과제였다.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치르는 전투, 거기에는 공존, 상생, 평화 같은 것이 자리할 여지가 없었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 운동의 목표는 이 사회를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바꾸는 것, 그것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었다. 그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불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혁명이론을 독파하면서 더 근본적이고, 더 빠른 혁명을 연구했다. 이 사회의 부분적 변화, 점진적 개혁은 개량으로 낙인찍혔고, 살아남기 어려웠다. 개혁적 법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중혁명으로 정권을 잡아 사회를 재조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이순임 외, 2007)

전문가, 그리고 시민참여의 시대:1990년대

전투적 운동 덕분에 민주화가 진척됐고, 사회가 좀더 열렸다. 그 틈을 타고 새로운 집단이 새로운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교수, 변호사 같은 전문가 그룹이 매스컴을 업고 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이 집단은 운동을 가두의 전투에서 시민단체의 성명과 법안을 만드는 영역으로 옮겨 놓았다. 한 사회를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된 시민적 역동성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바뀌었다.

돌아보면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호주제 철폐, 소액주주 관련 제도, 사학법 개정, 신문법 개정 등 시민운동이 요구한 개혁법안의 상당 부분이 현실화됐다. 개혁적 전문가들이 한국을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런 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 운동에서 정점에 이른다. ‘전문가’와 함께 이 시대의 운동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시민참여’다.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돌을 던지던 데모대를 멀리서 바라보던 시민들이 이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시민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회원이 5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단체나 조합원 13만 명을 거느린 생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혁명을 꿈꾸며 전투를 벌이던 방식보다는, 참여가 좀더 손쉬운 서명 운동과 촛불집회도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리고 규모 역시 엄청나게 커져서 백만 서명 운동에, 10만 촛불집회까지 등장한다.

이 당시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문적(혹은 직업적) 활동가가 기획하고, 많은 시민이 서명과 자원봉사, 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운동이었다. 경실련, 참여연대를 필두로 환경연합, 여성연합 등 90년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한 시민단체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활동했다. 조직형태나 운동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일사불란한 군사조직보다는 효율적인 기업조직을 더 닮아가려고 했다. 사실 이 당시부터 기업의 마케팅 개념이 시민운동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전문적 모금 기법도 활성화됐다. 그리고 전투성보다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설득력이 더 중요한 활동가의 덕목이 됐다.(이순임 외, 2007)

참여연대 다음의 시민운동은?

이제, 한 시대의 운동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 추세는 너무나 뚜렷하다. 주요 시민단체의 회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백화점식, 중앙집권적인 시민운동 안에서 ‘자성론’과 ‘성찰론’ 혹은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이 망하기야 하겠는가.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며 계속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종류의 운동이 19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힘 있는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급진적 민중 운동,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시민운동 이후에 출현할 새로운 사회 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80년대 사회 운동이 90년대 시민운동에게 길을 물었듯이, 90년대 시민운동이 풀뿌리 주민 운동에 길을 묻고 있다.(이순임 외, 2007)

지역사회운동론

한국의 지역사회 운동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와 함께 크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사회 운동에 대한 ‘사회적 피로□현상,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화 같은 운동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함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조직 운영, □아래로부터의 민의’ 전달의 어려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부족, 활동가와 주민 간의 유기적 결합의 부족 등 조직구성이나 운동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어 □성장의 병목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운동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조직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운동 조직의 근본적 혁신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운동의 조직 혁신을 위한 실험이 곳곳에서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 운동의 대안적 조직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는 미국의 사회 운동가 사울 알린스키의 시도는 교착 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사회의 지역사회 운동이 새롭게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한다.

알린스키의 지역사회 운동 모델은 사회 운동이 아직 초보적 수준이었던 1970년대부터 한국의 사회 운동계에서 폭넓게 수용돼왔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 운동의 실천 지침으로 소개되고 활용되었을 뿐, 한국적 현실에 비추어 그 모델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미국 및 서구에서의 알린스키 논의도 사회 운동의 행동 지침으로 수용되고 계승되었을 뿐,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 운동의 새로운 조직화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장세훈, 2018)

풀뿌리 주민운동

1987년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향해서 전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물결이 1990년대 시민사회운동으로 이어졌고, 시민사회운동은 참여와 자치라는 가치로 확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지금은 지역주민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지역이 세계변화의 중심이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사회변화의 힘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또한 지역의 풀뿌리 주민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참여와 자치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워가는 주체라고 주목하고 있다.

참여와 자치는 주민조직운동의 핵심가치다. 지역은 주민조직운동의 토대이며 주민은 그 주체다. 이렇게 새로운 민주사회를 이루자는 사람들이 주민조직운동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주민을 위한' 운동은 주민운동이 아니다. 주민운동은 '주민에 의한 주민의' 운동이다.

- 주민조직화란 무엇인가?

자신과 지역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주민의식을 갖는 것이다. 지역의 당면 사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의 체계인 주민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 세력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다른 주민조직들과 함께 대중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 주민지도자는 누구인가?

주민지도자는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을 직접 조직하고, 주민조직의 머리와 심장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을 움직여 가는 존재이다. 주민지도자는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움직이며 주민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주민운동의 핵심이다.

- 주민조직가는 누구인가?

주민운동에서 주민조직가는 '주민에 의한 주민의' 운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사람이다.

- 주민운동이란 무엇인가?

주민운동은 주민 스스로 행동하는 운동이다. 주민의 조직화된 힘으로 행동하는 운동이다. 주민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조직적인 운동이다.

- 주민조직화란 무엇인가?

자신과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주민의식을 갖는 것, 지역의 당면 사안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의 힘을 모아내는 것, 주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의 체계인 주민조직을 만드는

것, 여러 세력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다른 주민조직들과 함께 대중조직을 세우는 것이다.

- 주민조직화는 왜 하는가?

의식화(주민의식이 힘의 근원), 세력화(모여진 힘이 변화를 만든다), 인간화(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를 위해서다.

- 주민조직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주체적인 삶, 공동체, 민주주의이다.(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2012)



Ⅲ.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동의 전개과정과 사회적 의미

1. 유형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비교
2. 초록나라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동 사례

1 유형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비교

2018년 전국 작은도서관 현황

▶ 작은도서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6,330개 관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립	1,302	1,364	1,403	1,407	1,433
사립	3,932	4,231	4,511	4,651	4,897
전체	5,234	5,595	5,914	6,058	6,330

▶ 도봉구 작은도서관 수

- 2018년 기준 작은도서관 수는 경기도(1,536개 관)가 가장 많으며, 서울시(981개 관), 경상남도(424개 관) 순으로 나타남.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830	861	926	962	981
전국	5,232	5,596	5,914	6,058	6,330
도봉구	29	25	31	32	33

▶ 도봉구 작은도서관 1관당 장서(인쇄자료) 수

- -2018년 기준, 1관당 도서 수는 서울시(7,261권)가 가장 많으며, 대구광역시(7,089권), 경상남도(6,958권) 순으로 나타남.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7,034	7,214	7,066	7,270	7,261
전국	5,805	5,931	6,026	6,143	6,168
도봉구	9,871	12,601	10,727	10,690	8,717

▶ 1관당 방문자 수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8,233	7,777	7,470	8,194	7,980
전국	6,237	6,182	5,765	6,120	5,850
도봉구	7,405	10,175	5,656	6,837	6,138

▶ 1관당 대출도서 수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	5,871	5,755	5,224	5,292	4,709
전국	3,816	3,618	3,487	3,231	3,190
도봉구	7,355	10,053	12,754	12,181	4,433

2018년 도봉구 작은도서관 현황

▶ 도서관 기본정보 (2018)

도서관명	설립주체	개관년도	주소
도봉1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8	도봉구 도봉로 169나길 2
도봉2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5	도봉구 마들로 668(도봉동)
방학1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5	도봉구 방학로2길 27(방학동)
방학2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5	도봉구 시루봉로 226(방학동)
쌍문1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7	도봉구 노해로 147(쌍문동)
쌍문2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5	도봉구 방학로 3길 117(쌍문동)
쌍문3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5	도봉구 노해로 44길 9(쌍문동)
쌍문4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7	도봉구 시루봉로 62-7(쌍문동)
창1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6	도봉구 해등로 46(창동)
창2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2000	도봉구 덕릉로 59길 73-3(창동)
창3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2004	도봉구 덕릉로 62길 89(창동)
창4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3	도봉구 노해로 390(창동)
창5동 공립 작은도서관	공립	1995	도봉구 노해로 279-5(창동)
북한산아이파크작은도서관	사립	2007	도봉구 도봉로 136길 28 516동지하
초록나라작은도서관	사립	2006	도봉구 도봉산 3길 92(도봉동)
생글작은도서관	사립	2007	도봉구 우이천로 32길 35(쌍문동)
맑은샘작은도서관	사립	2017	도봉구 도봉로 145길 69 2층
나눔플러스아름인도서관	사립	2013	도봉구 도봉로 109길 40(쌍문동)
솔밭작은도서관	사립	2007	도봉구 우이천로 48길 4(쌍문동)
씨앗작은도서관	사립	2007	도봉구 도봉로 901 부성빌딩 402호
키움작은도서관	사립	2016	도봉구 삼양로 144길 11(쌍문동)
꿈을심는작은도서관	사립	2011	도봉구 우이천로 38라길 25-4
반딧불이작은도서관	사립	2008	도봉구 해등로 307(방학동)
참솔도서관	사립	2015	도봉구 시루봉로 193(방학동)
신창영어작은도서관	사립	2017	도봉구 덕릉로 249(창동)
라운제나작은도서관	사립	2012	도봉구 우이천로 20길 7(창동)
아름다운도서관	사립	2012	도봉구 도봉로 104길 63(창동)
외갓집에가자작은도서관	사립	2018	도봉구 우이천로44길 26(쌍문동)

▶ 소장자료(2018)

도서관명	도서자료(인쇄)(권)		연속간행물(인쇄)(종)	
	연간증가 장서 수	현재 총 보유장서 수	연간 증가 연속간행물 수	현재 총보유 연속간행물 수
도봉1동	369	8,534	0	0
도봉2동	347	10,858	0	0
방학1동	396	12,864	0	0
방학2동	400	10,714	0	0
쌍문1동	490	12,283	0	0
쌍문2동	467	14,826	0	0
쌍문3동	539	14,170	0	0
쌍문4동	414	11,557	0	11
창1동	405	12,525	0	0
창2동	435	10,744	0	3
창3동	474	9,164	0	0
창4동	398	6,286	0	0
창5동	507	15,853	0	0
북한산아이파크작은도서관	463	15,383	0	0
초록나라작은도서관	261	10,398	0	7
생글작은도서관	389	10,400	1	9
맑은샘작은도서관	2,100	4,500	1	1
나눔플러스	258	3,274	1	6
솔밭작은도서관	0	4,000	0	0
씨앗작은도서관	90	2822	0	0
키움작은도서관	150	4,800	1	7
꿈을심는작은도서관	300	2,300	1	1
반딧불이작은도서관	399	5,920	6	10
참솔도서관	1,000	4,079	0	0
신창영어작은도서관	1,500	3,500	0	0
라운제나작은도서관	350	2,620	1	2
아름다운작은도서관	30	3,930	0	0
외갓집에가자도서관	120	2,000	1	1

▶ 시설 및 설비(2018)

도서관명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열람(석)	PC 현황 유무 PC 현황 유무	컴퓨터대수	
				관리자용 (대)	이용자용 (대)
도봉1동	83	10	있다	1	1
도봉2동	53	13	있다	1	1
방학1동	72	30	있다	2	0
방학2동	60	15	있다	1	2
쌍문1동	90	15	있다	2	1
쌍문2동	72	11	있다	2	1
쌍문3동	66	12	있다	2	0
쌍문4동	60	18	있다	2	1
창1동	81	20	있다	2	1
창2동	47	30	있다	1	1
창3동	50	15	있다	2	1
창4동	50	15	있다	1	1
창5동	318	42	있다	2	2
북한산아이파크작은도서관	118	30	있다	1	1
초록나라작은도서관	97	20	있다	1	0
생글작은도서관	79	30	있다	1	0
맑은샘 작은도서관	98	18	있다	1	1
나눔플러스	53	10	있다	1	2
솔밭작은도서관	40	10	없다	0	0
씨앗작은도서관	36	24	있다	1	0
키움작은도서관	132	60	있다	1	1
꿈을심는작은도서관	50	12	있다	1	0
반딧불이작은도서관	399	20	있다	1	0
참솔도서관	126	30	있다	1	0
신창영어작은도서관	76	39	있다	1	2
라온제나작은도서관	86	36	있다	1	1
아름다운작은도서관	210	30	있다	1	1
외갓집에가자작은도서관	38	10	있다	1	0

▶ 인력현황(2018)

도서관명	인력현황 및 교육현황			
	직원 수	자원봉사자 수	사서자격증 보유자현황	
	직원배치	봉사자배치	직원(명)	자원봉사자(명)
도봉1	0	13	0	0
도봉2	0	20	0	0
방학1동	0	14	0	0
방학2동	0	16	0	0
쌍문1동	0	16	0	0
쌍문2동	0	11	0	0
쌍문3동	0	15	0	0
쌍문4동	0	15	0	0
창1동	0	21	0	0
창2동	0	18	0	0
창3동	0	11	0	0
창4동	0	21	0	0
창5동	0	14	0	0
북한산아이파크작은도서관	1	0	1	0
초록나라작은도서관	1	6	0	0
맑은샘작은도서관	0	0	0	0
나눔플러스작은도서관	2	3	0	0
솔밭작은도서관	0	0	0	0
씨앗작은도서관	1	1	0	0
키움작은도서관	1	8	0	0
꿈을심는작은도서관	0	3	0	0
반딧불이작은도서관	0	9	0	0
참솔작은도서관	0	0	0	0
신창영어작은도서관	1	4	0	0
라운제나작은도서관	0	5	0	0
아름다운작은도서관	1	1	0	0
외갓집에가자작은도서관	1	0	1	0

▶ 예산현황(2018)

도서관명	작년 한 해 도서관 예산현황(예산지출내역)			
	도서구입비(원)	인건비(원)	운영비(원)* 시설관리비/ 일반관리 포함	합계(원)
도봉1	5,000,000	3,774,000	3,440,000	12,214,000
도봉2	5,000,000	5,904,000	1,440,000	12,344,000
방학1동	5,343,400	6,336,000	4,190,000	15,869,400
방학2동	5,000,000	5,120,000	50,550,000	60,670,000
쌍문1동	5,000,000	11,952,000	1,440,000	18,392,000
쌍문2동	5,000,000	5,904,000	1,440,000	12,344,000
쌍문3동	6,730,000	5,856,000	1,440,000	14,026,000
쌍문4동	5,000,000	5,076,000	1,440,000	11,516,000
창1동	5,000,000	6,096,000	1,440,000	12,536,000
창2동	5,000,000	5,280,000	1,440,000	11,720,000
창3동	5,000,000	5,508,000	3,780,000	14,288,000
창4동	5,000,000	6,000,000	1,600,000	12,600,000
창5동	7,230,000	5,656,000	1,440,000	14,326,000
북한산아이파크작은도서관	4,830,000	10,790,000	2,836,130	18,456,130
초록나라작은도서관	0	0	7,000,000	7,000,000
생글작은도서관	4,000,000	10,000,000	12,000,000	26,000,000
맑은샘작은도서관	2,000,000	0	1,000,000	3,000,000
나눔플러스작은도서관	1,250,000	2,000,000	84,000	3,334,000
솔밭작은도서관	0	0	0	0
씨앗작은도서관	1,000,000	0	1,200,000	2,200,000
키움작은도서관	1,000,000	1,000,000	19,000,000	21,000,000
꿈을심는도서관	880,000	0	850,000	1,730,000
반딧불이도서관	3,730,000	1,040,000	1,460,000	6,230,000
참솔도서관	1,180,000	0	550,000	1,730,000
신창영어도서관	4,000,000	1,400,000	4,600,000	10,000,000
라온제나작은도서관	300,000	0	1,200,000	1,500,000
아름다운작은도서관	1,000,000	10,000,000	5,000,000	16,000,000
외갓집에가자작은도서관	0	0	3,000,000	3,000,000

▶ 이용자 관리(2018)

도서관명	이용자수(방문자 수)		회원등록자수
	연간 총 이용자 수 (명)	1일 평균이용자 수 (명)	
도봉1동	1,305	5	912
도봉2동	3,600	15	1,117
방학1동	3,600	15	1,117
방학2동	3,160	20	1,853
쌍문1동	4,800	20	1,475
쌍문2동	7,200	20	1,780
쌍문3동	1,708	7	2,587
쌍문4동	2,604	11	1,666
창1동	6,526	25	702
창2동	16,055	65	1,872
창3동	2,088	8	652
창4동	5,160	25	715
창5동	2,524	15	2,610
북한산아이파크작은도서관	19,470	66	1,332
초록나라도서관	5,220	20	350
생글작은도서관	6,525	25	700
맑은샘작은도서관	939	3	70
나눔플러스작은도서관	8,874	34	51
솔밭작은도서관	400	3	0
씨앗작은도서관	6,260	20	0
키움작은도서관	3,000	15	0
꿈을심는작은도서관	2,610	10	0
반딧불이작은도서관	1,168	4	1,276
참솔도서관	10,329	33	0
신창영어도서관	1,878	6	120
라운제나작은도서관	900	3	75
아름다운작은도서관	1,565	5	100
외갓집에가자작은도서관	4,800,000	20	30

▶ 지자체 및 공공 도서관의 지원 및 연계(2018)

도서관명	공공도서관과 연계			이전년도 지원내역			
	상호대차 서비스 제공 유무	순회사서 서비스 활용 유무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으로 부터 지원여부	인력 (명)	예산(원)	지원장서 (권)	도서 및 문화 프로그램(건)
도봉1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2,214,000	369	1
도봉2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2,344,000	347	0
방학1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320,000	420	1
방학2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60,670,000	400	0
쌍문1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8,392,000	490	0
쌍문2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2,344,000	467	0
쌍문3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4,026,000	539	1
쌍문4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1,516,000	414	0
창1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2,536,000	405	0
창2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1,720,000	435	0
창3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4,288,000	474	1
창4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12,600,000	398	0
창5동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2	14,326,000	507	0
북한산아이파크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1	5,230,000	389	2
초록나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3,750,000	93	2
생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17,480,000	389	2
맑은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2,730,000	657	2
나눔플러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3,730,000	114	1
솔밭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1,700,000	0	1
씨앗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4,480,000	90	4
키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0	0	0	0
꿈을심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1,730,000	100	0
반딧불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5,760,000	0	0
참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1,730,000	66	3
신창영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3,000,000	519	3
라온제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0	0	0	0
아름다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0	0	0	0
외갓집에가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0	0	108	0

▶ 독서문화 프로그램 관리(2018)

도서관명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 수 및 참가자 수					
	실시여부	프로그램수 (건)	실시횟수 (건)	참가자수 (명)	프로그램수 (건)	실시회수 (건)	참가자수 (명)
도봉1동	그렇다	0	0	0	4	4	80
도봉2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방학1동	그렇다	1	11	15	0	0	0
방학2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쌍문1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쌍문2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쌍문3동	그렇다	1	9	53	5	5	55
쌍문4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창1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창2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창3동	그렇다	0	0	0	1	4	60
창4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창5동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북한산아이파크	그렇다	1	40	288	1	14	205
초록나라	그렇다	2	15	175	4	4	120
생글	그렇다	2	63	450	5	70	600
맑은샘	그렇다	1	5	6	1	2	20
나눔플러스	그렇다	4	26	160	2	6	36
솔밭	그렇다	1	17	9	0	0	0
씨앗	그렇다	4	20	200	0	0	0
키움	그렇다	3	36	27	0	0	0
꿈을심는	그렇다	1	3	18	3	25	300
반딧불이	그렇다	3	28	34	3	5	21
참솔	그렇다	1	3	99	0	0	0
신창영어	그렇다	1	12	50	1	32	15
라운제나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아름다운	그렇다	1	4	20	0	0	0
외갓집에가자	그렇다	1	12	60	1	6	30

2015년 도봉구 작은도서관 현황

▶ 공립 14개/ 사립 14개

공립(14)		사립(14)	
운영주체	도서관명	운영주체	도서관명
새마을 문고	도봉1	입주자대표자회의 (아파트)	반딧불이작은도서관
	도봉2		방학청구아파트도서관
	방학1		북한산아이파크독서당
	방학2	개인 및 단체	새마을어린이문고
	방학3		생글작은도서관
	쌍문1		책임는사람들(휴관)
	쌍문2		초록나라작은도서관
	쌍문3	종교시설	꿈을심는도서관(휴관)
	쌍문4		레온제나작은도서관
	창1		아름다운작은도서관
	창2		옹달샘작은도서관
	창3		나눔플러스아름인도서관
	창4	지역아동센터	솔밭작은도서관
	창5		씨앗문고

▶ 공립 작은도서관 시설현황(2014)

순번	도서관명	총면적	좌석수(좌식/입식)	비고
1	도봉1	25평	10석/없음	
2	도봉2	16평	없음/10석	
3	방학1	32평	8석/8석	
4	방학2	18평	15석/없음	
5	방학3동	82평	14석/28석	김수영문학관에 위치
6	쌍문1	27평	5석/10석	
7	쌍문2	21.4평	6석/12석	
8	쌍문3	20평	8석/6석	
9	쌍문4	18평	18석/없음	
10	창1	24.41평	없음/12석	

11	창2	14평	14석/없음	
12	창3	15평	없음/12석	
13	창4	7.8평	없음/없음	시설기준미달
14	창5	96평	없음/50석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써어 있고, 별표1에는 작은도서관 시설과 자료기준은 “건설면적 33제곱미터,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이고 “건설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써어 있다.(문휘, 2015)

▶ 공립 작은도서관 인력·운영시간 현황(2014)

순번	도서관명	봉사자	운영시간
1	도봉1	14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2	도봉2	10명	14:00-17:00
3	방학1	20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4	방학2	20명	10:00-17:00(점심시간 없이 교대)
5	방학3동	17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6	쌍문1	20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7	쌍문2	9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8	쌍문3	20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9	쌍문4	18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10	창1	20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11	창2	20명	10:00-17:00(점심시간 13:00-14:00)
12	창3	10명	14:00-17:00
13	창4	21명	14:00-17:00
14	창5	20명	10:00-17:00(점심시간 없이 교대)

- 봉사자 인원은 많게는 21명부터 적게는 9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많은 동은 창4동으로 21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었고 쌍문2동이 9명의 봉사자로 가장 적었다. 거의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문을 닫았다. 방학2동과 창5동은 점심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봉사자들의 교대로 문을 닫는 시간이 없이 7시간을 개방했다. 거기에 반해 도봉2동, 창3동, 창4동은 오전에 도서관을 담당하는 봉사자가 없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만 개방했다.(문휘, 2015)

▶ **사립 작은도서관-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현황(2014)**

순번	도서관명	총면적	총장서	장서증가량	봉사자	운영시간
1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12평	6,800권	150-200권	20명	월, 토 13:00-16:00 화-금 19:00-21:00
2	방학청구아파트 도서실	57평	12,000권	0권	1명	목요일 14:00-18:00
3	북한산아이파크 독서당	36평	15,179권	300권 내외	유급1명 (정사서2급)	월-금 14:00-18:00 토 14:00-17:00 하절기 13:00-18:00 동절기 13:00-17:00 토 14:00-17:00

- 시설

세 도서관 모두 면적은 도서관법에 어긋나지 않았고 일정 장서량 이상을 소장하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보였다. 반딧불이도서관은 관리사무소 건물을 같이 사용하였고 다른 두 개의 도서관은 독립 건물이었다. 반딧불이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운영시간이 관리사무소 운영시간과 다르지 않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방학청구아파트도서실은 독립 건물이라 출입구가 따로 있어 개방하고 있다면 출입에 불편이 없었다. 북한산아이파크독서당 역시 독립 건물이라 출입구가 따로 있어 출입에 불편함은 없었다.

- 장서

세 도서관 모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단 방학청구아파트도서실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내지 못해 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나 문의는 하지 못해 담당자가 대출반납 업무 이외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해 청구기호, 바코드 수정을 못 하고 있었다. 또한 방학청구아파트도서실은 3년 간 도서구입비가 없어서 신간을 구입 못 했다. 북한산아이파크독서당은 서울 도서관에서 지원받는 금액 외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도서를 구매했다. 필요하다면 3개월마다 55만 원 내외의 도서를 구매할 수 있었다.

- 인력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은 10명의 봉사자가 있어 다른 도서관과 달리 운영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운영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5명 정도라서 운영시간을 늘리기 어려웠고 봉사 가능한 시간대도 몰려 있어서 운영시간이 겨우 3시간밖에 안 됐다.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은 요일별로 운영시간이 달랐다.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혼란스러울 것 같았다. 방학청구아파트도서실은 1명의 담당자가 다른 봉사자 없이 홀로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운영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4시간 개방을 했는데 그마저 운영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북한산아이파크는 1명의 사서를 인건비를 써서 고용하고 있었다.(문휘, 2015)

▶ **사립 작은도서관-개인 및 단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2014)**

순번	도서관명	총면적	총장서	장서증가량	봉사자	운영시간
1	새마을어린이문고	10평	4,000권	0권	3명 (실질적으로1명)	월, 화, 목, 금 14:00-17:00
2	생글작은도서관	24평	9,288권	430권	유급1명 봉사12명	월-금 12:30-18:00 토 12:30-16:00
3	책읽는사람들 (휴관)	46.99평	11,000권	0권	-	-
4	초록나라작은도서관	20평	10,100권	500권	12명	13:00-18:00

- 시설

새마을어린이문고를 제외한 3개의 도서관은 도서관의 면적이 일정 장서량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졌다. 새마을어린이문고는 오래된 책을 적치하고 있고 서고 사이의 폭이 좁아서 더더욱 좁아 보였다. 열람하기에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총 면적도 33제곱미터라고 하기에 좁아보였다. 생글작은도서관은 면적에 비해 많은 장서량으로 약간 비좁은 느낌이였다. 다만, 어린이가 주 이용자라는 점을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책읽는사람들은 봉사자가 전부 생글작은도서관으로 옮겨서 사실상 해체했다. 초록나라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일정 장서 이상을 소장하기 충분해 보였고 늘어나는 장서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소유했다. 또한 모든 도서관은 운영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출입구가 있었다.

- 장서

생글작은도서관과 초록나라작은도서관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생글은 골디스(경기도 작은도서관용 도서관리프로그램), 초록나라는 책꽃이(포스비브테크 개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책읽는사람들은 휴관 중이라 확인할 수 없었고, 새마을어린이문고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 인력

새마을어린이문고는 봉사자가 3명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담당자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담당자가 투병 중이어서 운영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다. 생글작은도서관은 상근직원이 1명 있었고 12명의 봉사자들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이나 도서관 운영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초록나라는 봉사자가 12명으로 운영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다.

생글작은도서관은 오전에는 운영을 안 한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주 이용층이 인근 초등학교 아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리 없는 운영이란 생각이 들었다.

책읽는사람들은 공간을 임대해줬던 사회적기업 '책을타고날다'가 계속 운영한다고 했지만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 전화 또한 받지 않았다. 초록나라는 운영시간보다 근방에 공립 도서관이 있어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문휘, 2015)

▶ 사립 작은도서관-교회 작은도서관 운영현황(2014)

순번	도서관명	총면적	총장서	장서증가량	봉사자	운영시간
1	꿈을심는도서관(휴관)	15평	3,500권	0	-	-
2	라운제나작은도서관	26평	3,100권	0	5명	월-금 10:30-17:00 토 10:30-13:00
3	아름다운작은도서관	64평	4,500권	150-200권	유급1명	11:00-18:00
4	옹달샘작은도서관	16.3평	3,300권	0	3명	화-일 9:00-17:00

- 시설

꿈을심는도서관은 2년 전부터 휴관 중이었다. 라운제나작은도서관은 식당공간에 있어서 총면적이 과하게 책정되었다. 아름다운작은도서관은 일정 장서를 소장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또한 많은 독립공간이 있어 별도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해 보였다. 옹달샘작은도서관은 서가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옹달샘작은도서관은 교회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도서관을 다양한 계층이 접근하기에 어려웠다. 다른 두 도서관은 운영시간에 접근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 장서

아름다운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리 프로그램으로 책꽂이를 사용 중이었지만 유지보수비에 부담을 느껴 교체를 생각 중이었다. 라운제나와 옹달샘의 경우 컴퓨터가 없어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없었다.

- 인력

라운제나작은도서관은 봉사자가 5명이라고 되어있지만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아름다운 작은도서관은 상근직원이 유급으로 1명 있었다.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이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대출반납 이외의 업무를 보기엔 무리로 보였다. 웅달샘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문만 열려 있었지 볼도 꺼져 있고 사람도 없고 운영 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도서관이었다. 5번 방문했어도 도서관에 봉사자나 담당자가 없었다.

라운제나와 웅달샘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라운제나의 경우 외부에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고 도서관이 있다는 안내간판등이 잘 되어 있었으나 정작 개방을 하지 않아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았다. 5차례 방문했을 시 사전 전화를 했던 한 차례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었다. 웅달샘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어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것 같았고 월요일의 경우 교회가 문을 닫아서 휴관인데도 그에 대한 안내가 외부에 충분하지 않았다. 4-5번 방문해도 한 차례도 담당자나 봉사자를 만난 적이 없었다.

아름다운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을 잘 지켰다. 오전, 오후 어느 시간대에 방문해도 담당자가 자리에 있었다. 또한 학생들 편의를 위해 공부를 더 하겠다면 오후 8시까지 연장개방을 했다.(문휘, 2015)

▶ 사립 작은도서관-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운영현황(2014)

순번	도서관명	총면적	총장서	장서증가량	봉사자	운영시간
1	나눔플러스아름인도서관	30평	3,600권	0권	1명	월-금 11:00-20:00
2	솔밭작은도서관	48평	2,500	400여권	1명	월-금 11:00-20:00 토 11:00-16:00
3	씨앗문고	11평	3,500권	0권	1명	월-금 10:00-19:00

- 시설

나눔플러스아름인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 내에 작은 방 하나가 도서관 독립공간으로 있었다.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로 보였다. 서가가 지역아동센터 내에 흩어져 있었다. 솔밭작은도서관은 독립공간 없이 지역아동센터 내에 서가를 두고 있었다. 씨앗문고는 도서관 공간에 독립된 방이 하나 딸려 있었는데 교회목사 사무실과 같이 쓰는 느낌이었다. 나눔플러스아름인도서관과 솔밭작은도서관은 독립된 입구를 가지고 있어 도서관에 접근하기 용이했다. 씨앗문고는 교회예배당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 접근이 불편했다. 특정 계층 이외엔 접근이 어려워 보였다.

- 장서

3군데 도서관 모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 인력

모든 도서관에 담당자 외에는 봉사자가 없었다. 담당자도 온전히 도서관만 관리한다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었다. 도서관에 담당자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눔플러스아름인도서관과 솔밭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을 잘 지키고 있었다. 씨앗문고는 이용계층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라 아이들이 오는 3시 이후에 개방을 하고 있었다.(문휘, 2015)

▶ 작은도서관 문제점 요약

※ 공립 작은도서관(새마을문고)

- 도서관법 시행령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도서관
(창4동 공립 작은도서관)
-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봉사자, 정상운영하기에 모자란 봉사자 수
- 마크데이터 미흡으로 통계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짐
(별치기호 통일이 안 되어 있음: 성인아동 도서비율 분간이 어려움)
- 도서구입과 지출내역 관리가 허술
(담당자가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일괄적인 지원 & 정확하지 않은 통계
(총장서량 대비 장서증가량을 볼 때 지원이 들쭉날쭉함/지원에 기준이 되어 할 총 장서량도 정확하지 않음)

※ 사립 작은도서관

- 독립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도서관
(라온제나작은도서관, 씨앗문고, 웅달샘작은도서관, 나눔플러스아름인도서관, 솔밭작은도서관)
- 이용자 계층 한정
- 교회 안, 예배당 안, 식당 안, 지역아동센터 안에 위치한 도서관
- 일부(생글, 초록나라, 북한산아이파크, 반딧불이, 아름다운작은도서관) 등을 제외하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전혀 도서구입을 하지 않음
- 비전산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도서관 일부를 제외하면 통계데이터를 잡을 수 없고 장서개발이나 자료수집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문휘, 2015)

▶ 작은도서관 활성화 과제

※ 공립 작은도서관(새마을문고)

• 구청

수서관리가 필요함

- 수서지침이 없어서 한 도서관에서 복본이 여러 권 발견되거나, 19금 로맨스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음, 일괄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정확한 통계데이터 구축이 필요
- 총장서량 대비 장서증가량 의미 없이 일괄적인 지원이 되고 있음
- 작은도서관 통계에 일괄적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보임
- 정확한 통계를 위해 각 동 마을문고에 잘 못 입력된 마크데이터 수정 및 장서점검 작업이 필요
- 주민센터 외관을 봤을 때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힘들, 도서관 위치 홍보강화 필요

• 공립 작은도서관

관리자 및 봉사자가 열정적이어야 함

- 대출, 반납만이 아니라 자신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라는 의식과 열정을 가져야 함
- 도서납품내역과 지출내역 관리 철저
- 담당자(회장)가 도서납품내역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 기존 자료를 모르고 어떻게 장서개발을 할 것이며 자료선정을 할 것인가
- 정기적인 교육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숙달
- 정상운영을 위한 봉사자 수 확대
- 근본적으로 봉사자가 모자란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사립 작은도서관

• 구청

지원에 대한 원칙수립

- 지원도서관 선정을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선정하지 말고 운영이 활성화된 도서관을 집중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립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인력 자립

- 지원이 없어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도서구입
- 정상운영을 위한 봉사자 확대
- 도서관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강화
-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름
-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입
-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료조직과 장서개발과 자료선정을 해야 함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기준

첫째, 도서관은 도서를 편안히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책을 찾기 위해 서가를 지나다닐 때 두 명이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다면 이용자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정보취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은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서관과는 상관 없는 다른 용도의 공간을 지나게 된다면 이용자는 이용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이용계층은 한정될 것이다.

둘째, 장서량이 2,500권 이상 되어야 하고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주제의 책을 수서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최소기준 1,000권은 너무 기준이 낮다.

셋째, 도서관 공간과 최소한의 장서구입이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자립이 되어야 한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4% 이상의 신규장서를 구입해야 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최소 그 절반은 구입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 운영에 사명감이 있는 책임자(안정적인 운영인력)가 있어야 한다. 이용자를 위한 수서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운영시간을 지킬 수 있는 인력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 인력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주 5회 이상 개관해야 하고 운영시간이 일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운영시간은 이용자와의 약속이다.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용자가 방문했을 때 개관시간에 도서관이 닫혀 있다면 이용자는 도서관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기증도서관 선정기준이나 서울도서관 지원 최소 기준이기도 하다.

○ 거점 작은도서관 지정-지원의 선택과 집중

현재 도봉구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위 기준을 충족하는 도서관과 그렇지 못한 도서관이 있다. 그중 위 기준에 현격히 모자라는 작은도서관들은 등록 및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 기준에 부합하거나 약간 부족하지만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는 도서관 중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작은도서관 지원을 해야 한다. 도봉구 관내에 지역별 거점도서관을 선정하여 거점지역 내 타 작은도서관을 이끌어가는 것이 제한된 예산 및 운영인력 지원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문휘, 2015)

2

초록나라도서관의 작은도서관 운동 사례

초록나라도서관 일반현황

○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1동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립 도서관.

○ 건립 경위

초록나라도서관은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 1동의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인 '뜨래뜨'를 결성, 3년간 활동을 펼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품앗이를 결성하기도 하고 주부 독서모임을 갖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다가, 2004년 9월 컨테이너 박스에서 품앗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도봉초등학교에서 1,500여 권의 아동 도서를 기증 받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도봉구 도봉 1동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아 초록나라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 변천

초록나라도서관은 처음에는 26.45㎡(8평) 컨테이너 박스를 도서관 건물로 활용하였는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건물로 이전하려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컨테이너 박스 도서관에서 2년여를 보내는 동안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5명의 엄마들에게 10만 원씩 추렴하고 일일카페를 열고 떡볶이 등을 팔아 기금을 모아서 지금의 건물 2층 공간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6년 4월 26일에 마침내 초록나라도서관이 재개관하게 된다.

○ 현황

초록나라도서관은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운영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약 1만 100권이며, 이용하는 회원은 약 240명이다. 도서관을 후원하는 회원은 70명,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는 15명 정도이다.

초록나라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도서관 안의 자원활동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공부와 친목을 동시에 다지는 '도서관 친구들', 도봉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삶에 대해 공부하는 '도봉 자연 생태 모임', 품앗이를 하는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미술 활동, 종이 접기, 동화 읽기 등의 활동을 하는 '방과후 품앗이 수업', 저소득 여성 가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책을 배달해 주는 ‘사랑의 책배달’ 등이 있다. 또 어린이날 기념 책잔치, 중랑천 생태 탐사, 우리 동네 영화제 등 다양한 소모임과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한다.

2005년 1월부터 자원봉사 활동으로 오후에만 운영되던 초록나라도서관은 그해 3월 책임 실무를 맡을 3명의 자원봉사자를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운영은 회원들의 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인용)

○ 운영현황

구분	내용
위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579-17호 2층
규모	약 96제곱미터
운영시간	평일 오후 1시~7시, 토요일 오후 1~5시
자료현황	도서 약 1만 권
개관일	2006. 4. 26

초록나라 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시스템은 품앗이 형태이다. 관장을 비롯하여 운영지기, 모임지기, 홍보지기 등이 있으며 자원봉사 형태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초록나라도서관의 운영비용은 후원회원들이 CMS 계좌로 매월 5,000원 이상씩 후원해 주는 것이 전부이다. 민간 도서관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현재 전혀 없다. 초록나라도서관 바로 앞에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이 2011년 1월에 개관하면서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구에서 100% 지원을 받는 구립 도서관이며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도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걸음이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초록나라도서관의 후원회원들도 많이 줄었으며, 책 읽으러 오던 아이와 엄마들의 발걸음도 점점 뜸해졌다.

2006년 6월에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해 8월에는 유네스코와 함께 외국인 과 함께 하는 여름캠프를 진행하였으며, 이 행사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08년 4월에는 국민은행이 후원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선정되어 리모델링도 진행되었다. 그 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책배달 사업(2004년 12월 시작), 매년 어린이날 행사(2005년 5월 시작), 책잔치 한마당, 도서관 책 읽는 소모임 등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 주요 특징

초록나라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에서 자발적인 엄마들의 교육품앗이로 시작된 모임이 현재의 사설 도서관이라는 형태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이다. 평범한 엄마들의 품앗이교육과 독서모임이 거듭되면서 함께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도서관의 형태로 귀결되었다. 초록나라도서관은 개인 한 명이 사재를 털어 만든 도서관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공간이다. 그 공간은 어린이 도서관이자 문화 공간이며 동네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자 엄마들도 함께 성장하고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은 품앗이 형태이다. 강좌 중 일정 부분은 재능 나눔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도서관의 운영 역시 엄마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2005년도 초록나라도서관의 이모저모

1. 모임 들여다보기

- 초록나라 지킴이:10시~18시까지 백조, 캔디, 천사가 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에게 도서를 대여하는 일을 맡아 수고합니다.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지킴이 회의는 매주 월요일 2시.
- 운영모임:보름에 한 번 초록나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내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운영모임에는 모임지기(노을), 홍보지기(공주, 물란, 방글이), 재정지기(백조), 회원지기(천사, 캔디), 책배달지기(하이디), 운영지기(햇살)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 도봉자연생태학교--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도봉산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게 우선입니다. 자연해설양성과정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배운 만큼 자원활동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원활동가양성교육, 어린이생태자연학교로 이웃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 주부독서모임:아이들을 깊이 바라보고 올바르게 소통하고 부모 자신의 성장과 발전이 먼저라는 깊은 깨달음으로 아이보다 먼저 공부하고 실천하는 책임기모임입니다.
- 교육품앗이: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이들 교육이라는 믿음으로 부모 역할을 서로 돕고 함께 키웁니다.

2. 1년 활동 들여다보기

- 책잔치한마당(5월 1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서원놀이터에서 책과 함께 지역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놀이로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중랑천탐사(4월~):중랑천의 생태를 관찰하고 수질조사도 함께하며 한 달에 한 번 6회에 걸쳐 활동했습니다
- 우리동네 영화제(10월 14일): 서원복지관과 공동으로 '안녕 형아'라는 영화를 서원놀이터에서 관람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초록나라도서관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책배달활동 개시(10월~):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까지 수십 명을 보호하고 있는 도봉산교회에 매주 금요일 10권의 책을 배달합니다.
-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11월 9일):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꿈을 현실로 이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정책관계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지를 모아보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초록나라는 도봉구 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도봉초 방과후 자연학교수업(11월 18/25일):운영모임의 멤버들이 2달에 걸친 자연해설양성과정을 마치고 첫 번째 수업으로 도봉초등학교 방과후 어린이들과 함께 2회에 걸친 자연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했던 자연학교수업은 날이 풀리는 봄이 오면 더욱 심화된 학습으로 깊이와 넓이를 더한 자연해설가로 되돌아와 어린이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도봉자연생태학교는 초록나라 2006년 사업 중 가장 선두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 수익사업: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떡국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의 과제

- 열린공간:도봉1동 지역의 주민들과 방과후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몇 사람의 공간이 아니고 동네 사랑방, 쉼터로 동네 대소사들을 나누는 그런 포근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 폭넓은 참여:초록나라에 가면 주부건 아이들이건 재미나게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배우고 배운 건 서로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 *탄탄한 재정:몇몇 사람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열악한 재정구조는 회원의 확대, 후원회원의 적극적 모집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 *새로운 공간확보: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공간은 아이들이 편하게 뒹굴면서 내 집처럼 드나들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확보를 위한 아이디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초록나라공동체의 비전 세우기:도서관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마음 고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록나라도서관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위로받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체문화의 바닷속에서 개인의 성장과 동네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품앗이공동체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동네에서 우리를 지키고 성장시키며,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초록나라도서관이 자리매김하는 꿈을 꿉니다.

○ 초록나라도서관 연혁

- 1996년: 동화 읽는 어른들의 모임 '뜨레뜨'로 도봉동에 교육품앗이의 씨앗을 심음
- 2001년: '도봉산품앗이'가 결성되어 다양한 품앗이의 영역을 넘나들며 품앗이를 실험.
- 2004년: 도봉1동에 '개구쟁이', '달빛천사', '매직키드마수리' 등 교육품앗이가 결성되다. 이후 방송을 타며 교육품앗이를 확산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이들 품앗이팀은 초록나라도서관의 시금석이 됨.
- 2004년 10월: 동네 한복판에 있는 컨테이너를 얻어 '초록나라도서관'의 첫발을 내딛음.
- 2004년 12월: 저소득 한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책배달 사업을 시작.
- 2005년 5월: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를 모색. 도봉구 시민단체협의회 주관 '차 없는 거리 아이들 세상'에 매년 참여.

- 2005년 10월: 책잔치한마당을 매년 개최.
- 2006년 4월: 품앗이 주부들 드디어 기금을 모아 현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도서관 개관.
- 2006년 6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시작. 책읽어주기활동(놀이터, 도서관, 장애우 단체).
- 2006년 8월: 유네스코와 함께 외국인과 함께하는 여름캠프 매년 개최.
- 2007년 10월: 한예총 대학생과 함께하는 벽화공동작업
- 2007년 12월: 나눔 공연 '윤희간의 피아노콘서트' 개최
- 2008년 4월: 초록나라도서관 리모델링(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선정 국민은행 후원)
- 2008년 5월: 서원복지관과 연계한 '트라이앵글 공부방' 시범운영.
- 2008년 4월: 청소년 카페 'YOUTH' 교육문화공동체 결성.
- 2009년 5월: 북한산 국립공원과 자매결연.

초록나라도서관은

1. 기운 좋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 살아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3. 마당을 나온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4. 누구에게나 비추는 햇볕이 되겠습니다.
5. 발칙한 자유와 상상이 허용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6. 인생의 나침반을 드리겠습니다.
7. 꿈을 잃은(찾는) 그대, 도서관으로 오십시오.
8. 다양한 세상을 만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9.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온 마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10. 우리 땀, 젊음, 시간, 열정을 도서관에 묻겠습니다.
11. 착한 마음들을 모아 미래를 밝히는 촛불이 되겠습니다.
12. 마을을 담고, 마을을 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13. 도서관을 중심으로 삶터를 가꾸고 공동체를 지원하며, 치유와 성장을 돕겠습니다.

초록나라의 문화 키워드 '품앗이'

돈 없이 살 수 있다면 삶이 고통이라고 이렇게 아우성치지 않을 것 같다. 악마의 금전이라는 돈.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걸까? 돈 없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지금 세상에서 자본 없이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되고 싶고 갖고 싶었던 게 뭔지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결국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경제활

동을 하지 않고 살림하는 주부로서 동네 안에서 품앗이라는 우리네 조상들이 남겨준 지혜로 여러 가지 실험적 활동을 해보았다. 돈이 오고 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아이들 교육, 문화적 향유, 물물 교환, 다양한 관계맺기와 도움들, 나의 삶의 질 높이기, 나의 공간과 일 찾기, 나의 성장과 발전, 도서관 운영 등을 동네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해왔다. 초록나라도서관을 통해 경험한 품앗이 활동은 아마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억의 돈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초록나라도서관은 3개의 품앗이팀 엄마들이 모여 만들었다. 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소모임, 조직이 모두 품앗이 정신에 입각해서 움직인다. 자원을 모으고 그 자원이 원활하게 돌게 하는 것이 우리네 일감이다.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건 진리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 생각들, 열망들, 자원들, 에너지들을 흐르게 하면 동네는 활기를 띠고 생명은 색깔을 입는 것 같다. 표현되지 않은 많은 상상력들이 도서관에 와서 꽃을 피운다. 그것이 초록나라도서관의 힘이고 생명력이다.

품앗이로 조직된 도서관 교육

지역에 있는 주부들과 단체들의 자원을 조사하고 방과후 어린이 수업과 자원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강사로 모신다. 동네 주부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들(요리, 화장품 만들기, 타로카드, 공예품 만들기, 종이접기, 강의 들었던 것들)과 지역단체가 내놓는 강사풀(한살림의 먹거리와 만들기 강의, 여성민우회 강의)이 매주 도서관에 모이는 주부들에게 제공된다. 강의는 강의로 값는다. 지금 당장 못 값으면 다음을 기약한다. 당사자 간 주고받음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값겠다고 한다. 값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때가 되었을 때 나누게 될 것이다. 타 단체의 도움에는 그 단체의 필요와 우리의 자원 안에서 주고받기를 모색해 본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우리네 동네아이들이나 주민에게 값는 걸로 보은하겠다고 한다. 어차피 물질은 돌고 도는 거니까!

예시) 2007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모집

마을 속 행복 도서관 '초록나라'를 아시나요?

오랜 세월 주부독서모임과 교육품앗이 활동을 해온 주부들이 모여 만든 작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곳은 동네사랑방으로서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고, 종이접기도 하고, 영화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여러 교육강좌나 모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부들 자신의 성장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지역의 어린이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함께할 도서관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표**

1. 작은 어린이도서관 자원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2. 배운 만큼 도서관과 지역어린이에게 베푼다.
3. 이론교육, 인성교육, 실무교육 등 기본교육과 실천적 활동으로 개인의 힘과 능력을 키운다.
4. 자신의 성장과 서로의 발전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든다.

****진행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상 반 기	설명회	양성과정의 전체일정과 내용 설명
	오리엔테이션-타임캡슐	각자 소개 및 양성과정 운영 전반에 관해 설명
	왜 어린이도서관인가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가치
	심성훈련 1, 2	나는 누구인가?
	자원활동가란 무엇인가	자원활동가의 자세와 의미
	MBTI로 나를 알아보자	성격유형으로 알아보는 나와 너의 관계
	중랑천 자원활동	수질검사, 식생 모니터링
	단체탐방	도서관, 어린이 대상 단체, 지역주민 관련 기관 등
	탐방결과 발표하기	
	부모역할훈련1, 2, 3, 4	아동심리, 여성심리, 발달과정과 훈육기법 등
	우리동네 알아보기	동네 주요인사 인터뷰, 동네지도 그리기
	워크숍	전문강사
	비폭력대화 프로그램	우리 안에 있는 폭력적 말, 나눔, 상생, 연결성 깨닫기
	자원활동-장애우기관	
	프로젝트1-여름캠프등	
	상반기평가, 성장파티	
하 반 기	춤테라피	내몸이 말하는게 무엇일까? 내 안의 상처 들여다보기
	인간관계 훈련	전문강사
	갈등해소 훈련	전문강사
	나를 찾아 떠나는 글쓰기	자아발견, 자기비전 찾기 1, 2, 3, 4
	영화 보러 가기	
	마음공부1, 2	내게 일어나는 분노와 화의 실체를 보자
	워크숍	전문강사
	중랑천 자원활동	

	그림자 연극놀이	시청각교재를 이용해 정기적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 반 기	프로젝트2-행사치루기	캠프, 회원만남의 날, 후원자 모으기 등
	보고서 발간	도서관 자원활동가양성과정 전반을 모아 자료집 발간
	하반기평가	
	성장파티	

**특전

1년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자원활동 인증서를 드립니다.

**운영방식소개

1. 명상이나 인간관계 프로그램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운영회의를 통해 그날의 평가와 다음 일정과 내용을 정합니다. 소수의견도 존중됩니다.
3.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사회는 매주 돌아가며 맡고, 모든 역할은 분담해서 해 봅니다.
4. 자원봉사도 합니다.
5. 도시락을 준비해서 점심을 같이 먹으며 정을 나눕니다.
6. 70% 참석하고 4회 이상 자원활동시 수료증이 발급 됩니다.



○ 운영품앗이

관장, 운영지기, 재정지기, 회원지기, 홍보지기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운영위가 되어 도서관 전반의 책임을 서로 나누며 운영한다.

○ 재능나눔

아주 멋진 화가 한 분이 계신다. 배고픈 예술가는 아니다. 힛집을 운영하시니 살 만하시고 나이가 들어 이제 사회에 자신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기여하고 싶다고 하셨다. 처음엔 아이들의 미술지도를 생각하셨던 것 같지만 지역의 어머니들을 훌륭한 미술교사로 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을의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헌신할 주부들이다. 물론 전제는 있다. 1년을 무료로 지도를 받으니 1년은 자원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배워서 남주자. 받은 만큼 돌려주자. 이러한 제안에 합의하고 소모임이 꾸려졌다. 테생부터 유화까지 어릴 적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는 주부들이 1년 후에는 도서관의 방과후 교사가 돼 있을 것이다.

○ 반찬품앗이

요리에 한 맺힌 주부들이 우리동네에는 많았다. 살림과 요리에 자신 없어 구박받고 좌절한 아줌마들이 모였고 각자 자신 있는 요리 한 가지씩 5인분을 해 와서 나누기로 했다. 1주일에 한번. 세세한 규칙은 형편에 따라 정하면 된다. 직장을 다니는 주부들이 제일 좋아했고 멤버 중에 한 명이 일품요리를 가끔 선보일 때는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한다. 물론 대가 없이 자매애로, 공짜로, 우리는 우리의 품과 지식을 나눈다.

○ 남편참여품앗이

요리에 한 맺힌 주부들이 요리사자격증이 여러 개인 엄마를 설득해서 손님초대요리를 재료비만 내고 배우기로 했다. 끝이어 각 집마다 식탁이 달라졌고 남편들도 품앗이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가 없이 배우기는 했으나 받으면 꼭 어떤 형식으로든 갚아야 한다는 한국인의 정서상 되돌려줄 자원이나 재주가 없었던 주부들을 위해 남편들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한의사인 남편이 건강강좌를 4회나 해주었다. 이 사실은 사진기자인 남편이 디카 찍는 법과 앨범 정리 강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바둑강사인 남편은 아이들에게 바둑 지도를 해서 품들이 교환되었다. 감사와 따뜻함의 에너지가 주부에게서부터 남편들 사이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획되지 않고도 흘러 흘러 순환되었다.

○ 지식나눔품앗이

가방끈이 길든 짧은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의 기간 동안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보고 보살피며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할 시간도 여력도 없는 게 사실이다. 이미 커버린 아이들은 엄마를 무시하기 마련이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미처 소화 시킬 새도 없이 스스로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자신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좌절하고 만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육아, 여성, 환경, 생활, 유머까지 각자가 자신 있는 분야를 맡아서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뒤져서 1주일에 한 번 서로에게 나눠준다. 이때 가져온 주제 중에 토론이 필요한 것들은 자연스레 설전이 벌어졌고 나머지는 서로의 파일에 곱게 저장되어 자산이 되었다.

기억에 남는 건 유머나 우스갯소리를 수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공급했던 주부가 있었는데 우리는 모두 그날이 어서 와서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 것을 어린아이처럼 손꼽아 기다렸다. 그의 이야기는 포복절도할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런 정보는 남편들에게로, 주변의 동네아줌마들에게로 빠르게 전파되었는데 1년간 모은 자료가 아마도 책 한 권은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시도는 1주일에 무조건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의 책을 한 권씩 읽고 와서 요약 정리해 주는 것이었다. 공부에 한 맺힌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하고 있었다. 재미와 즐거움으로 그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서 했지만 우리의 의식은 변하고 우리의 행동 패턴도 변하고 삶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 주부품앗이

품앗이는 참 소박하다. 주부들은 자신의 품의 가치를 굳이 재거나 비교, 평가하지 않는다. 그것이 품앗이의 매력인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은 사실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일로 생색을 내거나 표를 안 낸다. 어떤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더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사람을 키우는 일)을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굳이 환산하자면 아이들과 한 번 수업하는데 백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큰소리친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백만 원짜리 품앗이과외를 해 주는 셈이다. 올해 고3인 큰 딸은 영어 실력이 중2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과외를 시켜달라는 큰딸의 요구에 동네아줌마를 물색하게 되었고 연년생인 세 아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주부를 만났다. 그의 영어 수능점수는 만점이었던다. 아이 키우는 것보다 공부가 쉽다는 이 주부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품앗이를 한다. 넓은 공간에 내 아이들 포함 다섯 아이들을 풀어놓고 가끔 간식주면서 나른한 한때를 보내는 사이 내 큰딸은 과외를 받는다.

이렇듯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재주들을 서로 나누는 일은 오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살던 삶

의 지혜였고 우리네 핏속에 간직되어 있는 빛나는 유전자다. 따라서 한국은행권 화폐가 아닐 지라도 나눌 수 있는 유무형의 것을 따지면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거래할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빛나듯이 우리네 아줌마들의 노동력과 에너지를 나누는 일들이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여도 품앗이 활동이 갖는 의미는 자못 심오하기까지 하다.

○ 중학교품앗이

전국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품앗이는 아마 우리가 처음일 듯싶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학원을 순례하느라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든데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얼 하려고 했던 걸까? 엄마들의 마음은 이랬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것은 아니다. 공부 잘해주면 고맙지만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문제아 혹은 낙오자로 몰리는 학교 현실 속에서 자식 나름의 인생을 구출하기 위한 엄마들의 몸부림이라고 할까.

이 아이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는 것을 우선 목표로 했다. 그곳에 대한 공부를 했고 떡볶이 장사, 벼룩시장을 하며 돈을 모았다. 모임의 원칙은 엄마들이 가능하면 주도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영화도 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스스로 만든 캠프도 하며 인생의 선배들을(작가, 외국인) 만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더니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을 준비 중이다. 중,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볼 생각이다.

행복이란 게 그리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잠자리, 맛난 음식, 일을 통한 성취감, 따뜻한 관계들. 굳이 유학 가지 않아도 박사가 되지 않아도 행복은 아주 소박하고 가까운 데 있는지도 모른다. 출세와 명예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행복 안에 우리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품앗이 엄마들의 소원이다.

○ 생일품앗이

아이들의 생일파티 문화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은 한다. 패스트푸드점 아니면 실내 놀이터에서 거행되는 생일. 초대받은 아이와 받지 못한 아이들의 갈등이 있고, 선물을 가져 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구나 그것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안다.

품앗이 엄마들은 이러한 생일문화를 바꿔보자는 제안을 했고 레크레이션, 풍선장식 등의 재주를 가진 주부들을 중심으로 학교놀이터나 가정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몸으로 놀아준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소중한 아이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 굳이 선물이 없어도 된다. 그저 놀이터에서 음료수 한 잔으로도 생일축제는 풍성해지고 그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그날의 생일을 우리 아이는 결코 잊지 못한다.

도서관 활동과 치유와 성장 이야기

- 나 아이 잘 키우는 거 맞아? 잘 모르겠어!
 - 그럼 동네 선배언니에게 물어봐
- 사교육 안 시키고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방법으로 키울 순 없나?
 - 교육품앗이라는게 있대. 우리 아이 같이 키우자.
-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좀 치짚어!
 - 그럼 책이라도 읽자. 독서모임 어때?
- 동네 한복판에 비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던데 거기서 우리 모임 할까?
 - 우리 이제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 다른 동네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걸 주민들이 만든대. 우리도 책을 모아 만들어보면 어떨까?
 - 좋아 좋아. 뭔가 좋은 발상이야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품앗이와 독서모임과 다른 차원의 도전이 묘하게 우릴 설레게 하는데?
- 자, 각자 정보를 모아보자. 우리가 신나게 놀 놀이터를 어찌 만들지!



○ 동네에서 풀뿌리로 일한다는 건

누구나 진실 앞에 선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동네에서 일한다는 건 낯날이 드러나는 일이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다. 말과 행동을 아무리 포장하고 이리저리한 모습으로 포장해도 존재 그 자체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다. 동네가 너무 뻘해서 뭔가를 숨기는 일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

모임과 조직의 대표나 리더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다. 부모역할처럼, 말이나 행동이라기보다 삶이나 존재 상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자리에 대한 부담감 말이다. 사람들은 상대의 진심을 에너지로 읽는다. 위선이나 가식은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니 참으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마을 속 작은도서관 초록나라에서 활동의 피드백은 즉각적이다. 프로그램 죽 썬면 바로 회비를 뺀다. 잘한 일은 소문도 안 난다. 당연한 것이 된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는 비누거품처럼 계

속 부풀어 오른다. 누군가 감정이 상하면 집단탈퇴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놀이터에서 유치원에서 학교모임에서 회자되고 만다.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마을 속 관계망 형성, 살기 좋은 마을 등과 같은 사업을 한 다기보다는 삶을 묻고 활동하다 보면 활동의 내용에 따라 칭찬과 비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록나라와 함께한 역사가 이야기가 되고, 우리들은 마을활동가들의 모델이 되어 있었다. 이제 잘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쳐다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탓이다.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다운 너'라는 글귀가 있다. 참 따뜻한 말 언제나 가슴에 울린다. 이제 동네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많다. 담담하다.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일에 늘 깨어 지켜보는 일이 숙제겠지만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해본다. 이제 동네를 내 안에 꼬옥 안아본다.(이순임 외, 2007)



○ 장애우 단체에서 책임어주기 그 특별한 경험

한동안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중 하나인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다.

- 놀이터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놀이터에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정말 많다. 가까운 놀이터에 가서 책을 전시하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돛자리와 파라솔을 펼쳐놓고 책을 읽어주다 보면 목이 아프다. 그러면 놀이터에 온 엄마들이 즉석에서 책을 읽어준다. 자칭 초록 나라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을 홍보하는 데, 이미지를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 유치원

유치원 찾아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아이들의 좋은 기운을 얻는 참 보람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아이들의 그 푹망푹망한 눈망울, 내 이야기에 순식간에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보는 건 얼마나 스릴 있는 일인지 모른다. 우리 엄마가 이야기 선생님이고 최고라고 아이들은 엄마의 활동을 지지해주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한 달에 한 번 유치원 아이들이 도서관에 단체로 견학을 왔다.

- 장애우단체

장애우단체를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했다. 처음에는 소아병동이나 시각장애우를 찾아가 볼까 생각하다가 가까운 곳에 정신지체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을 찾아갔다. 말이 아동이지 정신 연령은 3세 수준인데 나이는 20살이 다 넘었다. 덩치는 다 산만 했다. 아마도 운동이 부족해서인 것 같았다. 첫날 상황은 뒷머리에서 땀이 줄줄 났다.

내 앞에 억지로 끌려나온 듯한 십여 명의 산만 한 나이 많은 아이들. 소리지르며, 계속 박수를 쳐대며 원을 도는 아이, 손을 잡고 계속 반응을 요구하는 아이, 계속 흰자위를 굴러대며 노려보는 아이, 경기를 일으켜 끌려가는 아이까지 소리를 높여 책을 멋들어지게 실감나게 읽어주었으나, 아이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각오는 하고 갔지만 두려움이 엄습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는 선생님을 뒤로하고 나오며 내가 계속 이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이미 한 명의 봉사자는 문 앞에서 가버리고 말았지 않나! 무서운 표정으로 노려보는 한 친구는 요주의 인물이니 조심하라는 선생님 말씀까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각각이었다. ‘허튼짓이야. 이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똑같은 책을 질리도록 여러 번 읽어주다 보니 싫증도 나고 활동을 접고 싶은 마음이 턱에 찔던 그 한계점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똥 시리즈 책은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난주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라는 책을 듣고 난 후 아이들이 자신의 똥으로 장난을 쳤다는 것이다. 그 사건으로 선생님이 엄청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선생님을 보며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내려 한다.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말이 생각한다. 그가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학벌이 뛰어나더라도,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말이 있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가는 것의 차이는 없다는 말,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생애 아주 높은 정신의 소유자라는 말도 있으니 장애우에 대한 나의 인식의 전환기회이기도 했고, 그저 아이들과의 인연이 소중하기만 하다.(이순임 외, 2007).

○ 우리는 왜 행사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이제 그만

정부도 지자체도 하물며 학교, 교회, 단체도 회원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이곳 도봉구 도봉1동 시골스러운 동네에도 연주회, 전람회, 노래자랑, 대보름행사, 등산대회 등이 열린다. 기관마다, 단체마다 1년에 치르는 행사들이 대단히 많다. 보여주기식 행사는 절대 안 한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5월의 어린이날 행사, 8월에 유네스코와 하는 여름캠프, 10월에 책잔치한마당, 12월에 회원 간 망년회 등 잇을 만하면 또 숨들릴 만하면 행사준비를 한다.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다.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행사, 돈을 쓰기 위해 하는 행사,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 결실 없는 행사를 관성적으로 할 때 몰려오는 공허감과 허탈감은 내

생명력을 빼간다. 행사 치르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꼭 잊지 않고 가져가야 할 나름의 원칙을 정리해보았다.

○ 유네스코 여름캠프 이야기

올해도 외국 청년들과 도서관에서 먹고 자고 놀면서 여름캠프를 했다. 외국인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과 보름 동안 지지고 볶았다. 경험이 있으니 후회 없이 잘할 수 있으니라 생각했건만 아쉬움은 또 남는다.



- 행사의 목적을 잊지 않기

2006년 첫회는 도서관 벽에 벽화를 함께 그렸다. 벽화를 그리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 보면 뭔가 함께하고 싶은 게 있겠지 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들은 더위를 먹어서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1주일 내내 누워 있다가 그냥 갔다. 우리는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들의 무기력 정도로 치부하고 별 도움을 주지 않았다. '사람이 빠릿빠릿해야지 말이야'란 우리의 판단이 더위와 싸우고 있던 그 두 친구에게는 서러웠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첫회 때 평가는 캠프 참여자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왜 캠프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였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 행사를 왜 하지? 무엇을 위해서 하지? 그저 별 사고 없이 잘 있다 갔네 정도만 남았던 것이다. 초록나라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초록나라도서관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봉사하러 온다는 생각만으로는 배움이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봉사 잘하고 왔다가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소개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

- 화려한 프로그램, 참여자는 소외되고 대상화된다

2008년 3회는 캠퍼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였다. 밤을 세워 수업을 준비하느라 잠이 부족

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힘들었다. 영리가 목적인 일반단체 캠프 못지않게 잘했다. 그런데도 아쉬움이 남는다. 아이들이 대상화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외국문화 배우기는 학습이 되어 정작 외국 언니 오빠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잔잔한 일상의 느낌을 공유하는 여유로움이 없어졌다.

10시부터 짜인 프로그램 소화, 그 다음 프로그램 준비, 아이들 정렬, 통제, 그리고 통역하는 친구들에게 집중되는 의사소통 과부하. 모두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프로그램 실행에 급급해 끌려다니는 느낌이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였다. 다만 이 캠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싶었던 건지 그 원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리라. 캠퍼들의 목적, 참여 어린이들의 목적, 도서관의 진정한 행사목적들이 서로 잘 소통되지 못한 채 표류한 대가이리라. 이 캠프를 통해 뭘 얻고 싶었던 걸까? 그게 실종되었다.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주는 이 허탈감으로 한동안 힘들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감동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건 무엇이였을까?

- 주도적으로 하라

2009년 4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매년 다르다는 생각. 세대 차가 이제 1년 단위로 나는 모양이다. 배낭을 메고 오던 아이들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먹고 치우고 이불 개고 가방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까지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물론 18살에서 23살사이 아이들이니 이해는 간다.

태국에서 온 친구가 중간에 울면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다. 계속 혼자 적응 못 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유럽 아이들은 유럽 아이들대로 중국어를 하는 친구들은 그들대로. 결국 그 친구가 사라졌고 찾으러 다니느라 애를 먹었다. 공중전화 박스에서 찾은 그 친구에게 모두 미안해 했지만 그녀를 꼭 안아주는 친구는 없었다. 캠프 기간 내내 그녀는 혼자 있었고 외로워 보였다.

행사는 무사히 마쳤고 모두 헤어지는 날에는 눈물을 흘렸다. 아쉬움과 미안함이 많아 더더욱 감정이 폭발했다. 물질이 넘쳐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일할 사람이 많아도 정작 내 일이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행사는 이렇게 되고 만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뭘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배우고자 했던 게 뭘까? 대강 시간 때우고 놀고자 하는 친구, 관찰자로 남아 있는 친구 등등 이 친구들에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 자신이 정한 만큼 자신의 열정만큼 그만큼 보고 배우고 가져간다는 것,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이겠다.

나는 얼마나 이 캠프의 멋진 그림을 그렸는가? 주인으로서 참여는 했던가? 그저 캠프가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끝나기만을 바랐고 구경꾼이었으니 나는 새 발의 피만큼도 배우지 못했다.

○ 기금마련 후원행사

- 새로운 차원의 사고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1년에 3~4차례는 기금마련 후원 티켓을 사게 된다. 재정마련=후원 티켓 판매. 사실 너무 번하지 않나? 지역단체들을 통해 10장 혹은 20장의 일일호프 티켓을 할당 받을 때마다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동안 일일호프에 가서 좋았던 느낌보다 뭔가 아쉬움이 더 많았기 때문이리라. 우리가 언제까지 재정마련을 티켓 형태로 확보해야 할까?

제 살 깎아 먹는 줄 뻔히 알면서 뻔한 단체들에게 떠넘기면서 기금을 모아야 할까? 정신없는 분위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느낌, 이렇게 기금을 모으는 방식 말고는 없는가? 일일카페를 동네잔치로 즐기며 놀 수 없을까? 우리의 목적을 돈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일일호프는 참 재미없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만다. 한 번에 1년 운영비가 나오게 하려니 이래저래 지역에 민폐가 된다.

- 조직의 생산력과 생산능력을 키우는 기회이다

후원행사 준비하는 준비팀을 꾸리는 단계부터 우리 단체에 관심은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함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주부들 중에는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과정을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 즐거운 놀이정도, 특별한 경험으로 기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힘들게 일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이다.

소란스러운 잔치가 주는 신명이랄까?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묻고 나면 자연스레 이 행사가 잘되길 바르게 되고 함께한 이들과 친분도 돈독해진다. 이렇게 함께한 이들은 바로 단체회원이 된다. 본인이 자리할 공간과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준비팀과 진행팀은 일할 사람 없다고 도와달라고 오두방정 떨면서 동네 주부들을 모은다.

행사준비위원회를 통해 회의, 토론, 일감나누기, 목표지점과 방법, 조직의 가치에 눈뜨며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일련의 훈련과 기회를 맞게 된다. 체험을 통해 성장하는 일꾼은 머리가 아니라 실천 속에서 감각을 갖게 되고, 공동체 안의 문화와 관계를 창조해내는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

-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황금률의 법칙)

풍요는 나눌수록 배가 된다. 모든 것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공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은 먹는 것에 목숨을 건다. 기금마련이 목표가 되면 풍성하게 대접할 게 없어진다. 손익이 앞서기 때문이다. 진정한 손익은 무엇일까? 눈앞의 후원행사 이익금인가 아니면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과 참여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관심을 갖고 따뜻하고 특별한 느낌으로 그들 마음 안으로 초록나라도서관이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후원은 꼭 물질이 아

니어도 된다. 진정으로 우리 단체가 잘되길 바라는 염원은 또 얼마나 감사한가? 무엇으로 그럴 수 있을까? 감동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들과 뭘 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지역의 아이들과 뭘 하고 싶은 건지, 당신 한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걸 잘 전달하면 마음을 내고 물질도 내지 않을까?

후원행사에 초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자. 먹을거리를 제공하느라 아무리 바쁘다 해도 온 손님이 멀뚱멀뚱 음식만 먹고 가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이 티켓 한 장을 사주는 행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당신의 물질과 시간을 내줌으로써 이 자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관계 맺기, 그간의 동향, 새로운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 황금 같은 기회에 진정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관계의 질과 이후 관계들이 끌고 올 자원과 활동의 폭발적 영향력이라는 도약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진실함으로 상대와 내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게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부끄러운 봉사이야기

2004년, 컨테이너에서 도서관을 할 때부터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이들에게 책배달을 했다. 1주일 한 번 4명의 자원봉사가 20여 명의 아이들에게 책을 배달해 주었다. 5년 가까이 했고 2009년 접었다. 외부에서는 초록나라도서관이 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위해 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찾아가는 책 서비스를 할 정도로 자원봉사조직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다른 도서관과 다른 게 있다면 책배달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찾아가는 작고 기민한 도서관이기 때문이라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작은도서관 안에서 교육, 문화, 복지를 다 담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때이다.

이제 '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위하여' 움직이는 도서관이라는 가장 큰 자랑거리를 가장 큰 실패로 평가할 작정이다. 물론 실패란 없고 오직 배움만 있을 뿐이기에 자원봉사를 우습게 알고

시작한 것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내 안의 우월감에 대한 깨달음 하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시간을 들여 내 애정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좋은 일 하면 하늘도 알아줄 거야. 내 자식에게 좋은 일 생길 거야, 선과 덕을 쌓는데 보답이 없겠어? 하늘 치부책에 낱알이 기록되면 더 좋고, 남들이 알아주면 더 좋고.’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우리네 마음 저 깊은 곳에 파리 뜬 생각일 것이다.

우리한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 더 나아가 불쌍한 사람은 경쟁사회에서 뒤쳐진 열등한 사람이란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은근히 낙인을 찍는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며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우월감과 안도감을 다루어야 했다.

-약속 지키기와 신뢰에 대한 깨달음 하나

사람들은 흔히 자신보다 나이 어리고 지위 없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함부로 하기도 한다. 어른과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많다.

반대로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어른이거나 일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약속은 지키려고 애를 쓴다. 안 지키면 보복이 두렵기도 하거니와 신뢰를 저버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니 성실한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가능하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별 의미도 못 느끼고, 그래서 내 집과 아이들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약속을 변경하게 되고, 다음엔 빠지게 된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아이도 별로 문제 삼지도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 그런데 힘이 든다. 양심이란 놈이 자꾸 얼쩡댄다. 계약은 자신과 했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란 낙인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찍는다.

- 봉사 왜 하니? 봉사와 관련된 깨달음 하나

참 어려운 주제다. 너 왜 봉사하니, 라는 질문을 오래도록 했다. 처음에 생각한 것만큼 아이들과 가슴을 터놓고 만나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들의 고민과 일상을 살필 만큼 내가 마음의 여유를 낼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 몇 명의 아이들에게 책을 배달하는 일이 너무 버거웠다. 가슴은 내가 안 열었다. 오래도록 책만 갖다 줬다. 원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가슴을 열면 너희들의 고민이 곧 내 고민이 되고 내 문제가 될 것 같고 내가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

처음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란 나의 이미지가 필요해서 시작했다.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문제라는 걸 안고 산다고 판단된 아이들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도서관 활동의 멋들어진 간판 프로그램이 필요했기도 했고, 봉사자들을 조직하면 그들이 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원활동가들로 도서관에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알팍한 계산도 들어 있었다. 봉사활동에는 많은 이기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

그걸 바라보는 일은 참 어려웠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활동에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이다. 사랑. 일과 만나는 아이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 안에서 만났어야 했다. 책을 배달하며 그 아이들에게 사랑도 배달했다면 더 풍요롭게 기뻐했을 것이다.



○ 우리들은 왜 도서관에 있나

우리 모두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그래서 어른도 아이도 어릴 때부터 목을 맨다. 사교육의 나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교수는 수익 원천이 되고 학생들은 기업이나 국가가 소비할 노동력으로 자신을 키우기 위해 값비싼 등록금을 낸다. 외주 하청업체로서 무언가 가치를 생산할 노동자로서의 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제 대학은 지성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권력기관이 되었고 지성이 성장, 소통, 전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부패 속에서 수익성 척도에 따라 서열화되었다고 한탄만 한다면 진정한 지식과 지성인, 진정한 교육기관의 역할과 배움의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인가. 여기저기 온통 지적 욕구에 목마른 사람 천지인데.

우리는 지금 도서관에 있다. 21세기에 들어 물질적 부를 집적한 자본권력은 세계의 모든 자본규제를 철폐하는 신자유주의 운동에 돌입하였다. 모든 장벽을 철폐하여 세계를 하나로 하자는 이 논리는 지역의 인간과 지역의 자연,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들을 희생하여 자본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중심의 사회적 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나라는 결코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본다.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회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인간은 도구로 이용된다.

이 사회는 개인(소수)의 절대적 권리만 있을 뿐, 공동체 사회의 의무나 윤리에는 관심이 없다. 인간과 자연은 자본의 논리에 복속되어야 하는 자원적 존재일 뿐이다. 왜 수년 전부터 우리 안에서 지역공동체, 공동체문화를 이야기했을까?

물질만능과 무한경제의 체제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의 정체성은 물론 자연까지도 그 기반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리라! 이 시대의 문제가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인식하는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건 자명하다. 자본과 물질만능의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세상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삶의 올바른 방식,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대안의 필요성이 절절하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안녕 속에서 비로소 보장된다. '개인의 살아남기'를 넘어선 공생과 상생의 가치. 물음에 대한 답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이순임 외, 2007)





IV.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정책 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3.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

1 정책 기반 마련 및 실천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실성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재설정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서와 실제 작은도서관의 평균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

(현행)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개선)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12석 이상, 도서관자료 3,000권 이상'

작은도서관 정체성 강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면 개정

작은도서관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과 함께 도서관의 한 종류로서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이 전면 개정된다면' 정의와 업무, 운영유형 및 운영주체, 등록기준의 세부사항, 등록에 따른 등록 취소·변경·폐관에 관한 사항, 운영인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범위,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작은도서관 진흥위원회,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직원,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개선 및 관리주체 규명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운영주체 규명을 통해 운영주체 지정이 필요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500세대 이상 설치기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상향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자치법규를 통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 등록 취소에 따른 권한 기능 강화

작은도서관의 양적 증가를 지양하고 도서관으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 강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등록 요건에 대한 충족기준과 부실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취소 권한 기능을 개선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항을 신설해야 한다.

2 정책 단위별 역할 재정립 및 협력체계 강화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작은도서관 전담 조직이 있는 곳은 17개 중 2개뿐이며, 작은도서관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포털 지원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인 상태이다.

작은도서관 정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전담 업무 수행을 위한 교차업무 가능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세스 구축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정책적 지원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립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분관 시범 운영 및 확대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와 스마트도서관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가 요구되고 있다. 협력 기반이 갖추어진 공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포인터로서 분관의 역할수행을 통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을 통해 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시범 운영되도록 규정하며, 시범 운영의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체계 구축

사립 작은도서관 대상 공립 지정 운영

작은도서관을 설립 주체에 따라 운영 유형으로 구분하면 공공기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립 작은도서관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개선을 위해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데 사립 작은도서관 중 공립 작은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 '공립'으로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공립 작은도서관과 동등한 수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시범 추진의 결과에 따라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사업 발굴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며,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서가 필요하다. 순회사서 지원사업 이외 노인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같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인력확보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가칭 '작은도서관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와 고용의 안정화를 재고할 수 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운영의 질적 향상,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

인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평가 지표 및 평가시기도 일원화하고 지역별 작은도서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교육내용 및 방법 개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1~2명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합교육을 받기 위한 외부 방문이 어렵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교육내용의 수준과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특화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건립이 증가하면서 도서관 서비스 사각지대는 점차 해소되었으며 지역사회 속에서 운영되던 작은도서관은 그동안의 역할과 존립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정부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화도서관 육성사업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도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화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용대상별, 주제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화지원 우수사례 도서관 발굴 및 보급을 위한 공모실시, 특화운영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권역별로 개최해야 한다.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대부분 행정직) 순환근무로 인해 작은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어왔다.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이자 업무 파악의 자료로서 ‘작은도서관 업무편람’은 유용할 것이다.

또한 신규 개관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기존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작된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의 상시 활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운영인력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 및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전국도서관대회, 2019)



V. 결 론

1.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의의
2. 진단과 처방

1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의의

2000년 이후 지난 수년 간 국내에서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이름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터져 나왔다. 2003년 전개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특정 방송국의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강력히 후원하여 국민 전체의 관심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꽤 많은 크고 작은 도서관이 이 시점에 세워졌다. 국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운동은 내 개인적 의견으론 절반은 성공, 절반은 실패라고 본다. 왜?

왜냐하면 도서관은 외형만 크고 좋다고, 수적으로 많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도서관을 움직이는 무형의 가치들, 사람들, 의식들, 관계들, 시스템들이 있어야 한다. 시쳇말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아파트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나는 이 공간에 이런 내용을 담고 싶다.

양극화 해소

작은 도서관들은 도시 저소득 주민 거주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의 생활권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굶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말이 있듯이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삶터 가꾸기

집 앞 골목길과 통학로 그리고 거리와 마을공간, 도시공간을 둘러보면 주인을 잃은 우리들의 삶터는 황폐하기 그지없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또한 더욱 피폐해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는데 우리네 인생은 혼자 남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천지다. 동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나눠 먹을 것들이 오가고, 품앗이로 서로의 애환을 털고, 삶은 살아갈 만하고 각각의 삶이 얼마나 축복받고 풍요로운지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넓은 의미의 대가족으로 동네사람들을 만날 순 없을까? 나는 가능하리라고 본다. 작은도서관 공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사랑방’ 개념의 지역공동체 이루기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꾸리거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작지만 큰 기여를 해야 한다.

2 진단과 처방

시설환경

첫째로, 공간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33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을 상향하여(예를 들면 66제곱미터) 강좌 및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교실을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층수나 승강기 시설의 구비가 필요하다.

둘째로, 기자재 및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 관리자용 컴퓨터 보유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지도사서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로, 작은도서관 조성권 위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등록 이전단계에서의 1관당 봉사인구 1,500~3,300명 이하로 정하고 도서관 간 거리가 300미터 이내는 등록을 억제하는 정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입간판 및 이정표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정표 설치 및 작은도서관 안내지도 제작하여 배포하여 홍보해야 한다

장서

현재 장서 수, 증서량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며, 장서 수 및 신간도서 부족으로 이용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로, 장서 수의 질적 수준 검토가 필요하다. 등록시 도서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출판물 70% 이상 보유를 권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장서 수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서교환 장터, 도서기증행사, 연계기업의 후원 등으로 장서 수를 확대하고 세종도서 및 출판사 기증도서 신청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로, 도서구입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정액의 도서구입비를 현재는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구입비의 월 단위 정기적 사용이 필요하다.

도서관서비스

대출 권수, 연평균이용자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 시행 유무 및 건수도 전국과 비교하여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첫째로, 신간도서를 확대하여야 한다. 대출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최신장서의 수집 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 신간구입 형태의 지원과 운영자의 자부담률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부터 홍보, 모집, 강사 섭외까지 지원하여야 하고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이벤트 지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동아리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동아리 육성을 위한 강사파견 사업 진행 또는 연계를 통해 동아리를 조직하고 동아리 활용 참고도서 지원 및 강사료를 제공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추진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수에 비하여 전담인력과 조직이 미흡하고, 작은도서관 내 자원봉사자 인원 및 조직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자체조직 및 인력 정비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하고 현장 지도사서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공립 예산 및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거점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 수준을 향상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사립 예산 및 지원이 필요하다. 도서관지원 확대를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운영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으로 지역의 롤모델 도서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분야

현재 작은도서관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기준이 없다.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기준을 제시

하고 자원봉사자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확대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업무분장 또한 필요하다.

첫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서관리업무의 자동화를 위한 전용프로그램 설치는 필수이다. 분류 및 서가 구성의 전문지식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운영자 자격기준에 교육 이수시간을 포함한 운영평가가 필요하다. 도서관의 운영단계, 자원봉사자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내용도 필요하다.

셋째, 연계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간의 별도 조직이 없어 의견반영이 어렵다.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한 협력 기관망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공유에 필요한 다양한 조직과 활동이 필요하다.

기타 홍보

첫째, 도서관 소식지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지원내용과 조례 등을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고, 작은도서관 모범 운영사례 등도 소개하여야 한다

둘째, 작은도서관 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현황 및 분포를 나타낸 지도를 제작하여 관공서에 비치하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용자 확대 및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홈페이지 내 작은도서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 홈페이지 내 작은도서관 이야기 코너를 활성화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링크 및 자료공유 등이 필요하다.

넷째, 작은도서관의 일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오프라인 게시판, SNS 활용 등으로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홍보내용도 신간, 추천도서, 모집, 회계공지 등으로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별첨1_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제정) 2016.07.07 조례 제1147호

(일부개정) 2018.10.25 조례 제13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책임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 및 위탁)

- ① 구청장은「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관할 동장으로 한다.<개정 2018.10.25.>
-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와 같다.
-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

-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필요한 공간·설비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4. 자원봉사단 및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
 5.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실비
 6. 작은도서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25.]

제8조(운영인력)

-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다.
-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 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작은도서관 협의회 구성 등)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47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01호, 2018.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2_도봉구 작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2005)

도봉구 의회에서는 도봉구 주민들 사이에 작은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주요 정책결정 담당자들과 작은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더불어 도봉구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봉구 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공동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꿈을 안고 있는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이번 행사는 공청회와 더불어 동화 작가와의 만남, 형견인형만들기 등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도봉구 작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
- 주 제 : “ 어린이를 위한 마을도서관 만들기”
- 대 상 : 도봉구민
- 일 시 : 2005년 11. 5(토) 14:00~17:00
- 장 소 : 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 1층 광장
- 주 최 : 도봉구 의회
- 주 관 : 도봉구 작은도서관협의회
- 초청인사 : 구청장, 시·구의원, 국회의원, 기타
- 행사내용 : 공청회, 동화작가와의 만남, 인형만들기

《 공 청 회 》

-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 발표자 : 이순임(여, 42세)
 - 이 력 : 『기적의 품앗이 학습법』 저자
초록나라작은도서관 운영지기
현재 도봉구 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표
- 주 제 : 왜 도서관이어야 하는가?

- 어린이 도서관의 필요성
 - 발표자 : 박 소희
 - 이 력 : 인천 어린이도서관협의회장
인천 늘푸른어린이도서관장
- 주 제 :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린이 도서관

- 타지역 사례 발표

· 발표자 : 이진우

· 이 력 : 부천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사서
부천 문화재단도서관 운영팀장
부천 작은도서관협의회 총무

- 어린이를 위한 작가들의 시각

· 작 가 : 이억배

· 이 력 : 『솔이의 추석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반쪽이』 외 다수의 동화 지음

· 작 가 : 정유정

· 이 력 : 『오리가 한 마리 있어요』

『고사리 손 요리책』 등 다수의 동화 지음

【전시 및 참여마당】

《 그림책 동화 작가와의 만남 》

* 공동작업 : 『딸기 한포기』를 읽고 4조로 나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딸기밭 꾸미기

* 개별작업 : 『개구쟁이 ㄱㄴㄷ』을 읽고 나무목걸이 만들기

《 원화 전시 》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자연현상에 대해 쉽게
풀어놓은 과학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한옥,
전통혼례 등 문화가 담긴 그림.

《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

- 형질 인형 만들기로 만들 때 마다 인형의 머리모양과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눈과 코, 입을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
록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가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형만들기.(2005. 11. 4)

도봉구 도서관 정책 제안서

수신: 도봉구청장

발신:도봉구 작은도서관협의회

2009

도봉구 작은도서관협의회를 소개합니다.

▶ 도봉구 작은도서관협의회는

도봉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정착, 발전, 연대,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건강한 독서문화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05년 10월에 창립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캠페인, 세미나를 열고 어린이독서문화 운동, 작은도서관 운영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 도봉구 작은도서관은

민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독서 및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동네주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사랑방이고, 아이들에게는 딱딱하게 앉아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놀이처럼 책을 즐길 수 있는 책놀이터이고, 지역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의 이용자이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함께해 나가는 자원봉사자요 후원자이고 더 나아가 운영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입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할 수 없다. ‘작은도서관’이란 말은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형용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운동’과 ‘정신’에 의미를 부여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자조 운동인만큼 ‘크다’ ‘작다’라는 규모나 시설의 의미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넌 뭐니?

●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 기능을 넘어 마을복지, 마을공동체, 마을문화단체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학원에 다니지 못하거나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식구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며, 동네에서 자율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 아이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무료 책배달 서비스’
- 지역의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책잔치 한마당’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워크캠프’

● 작은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장이며, 교육공동체 공간,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장점은 ‘가깝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마을의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방 메고 들러 쉬어 가거나 학원 가는 길에 톱툰이 들려 텅굴며 책을 보며 쉬는 공간입니다. 또한 다양한 강좌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 교육 관련 강좌 진행 : 성교육, 유아그림책 관련 교육, 어린이 독서지도교육
- 성인 강좌 : 인문학 강좌 진행, 좋은 먹거리 교육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연생태교육 진행, 평화교육 진행
- 자원봉사자 교육, 도서관학교, 방과후교실 진행

●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형식의 작은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정책을 가장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공간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활동가 조직이 탄탄하고,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마다 구성된 자원활동가 조직
- 다양한 동아리와 소모임 조직

● 도서관은 교육, 문화, 복지영역을 넘나드는 커뮤니티센터입니다.

- 복지: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소아암 환자를 위한 책임기 도우미를 길러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책임기 활동을 돕는 전문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 도서관의 운영자, 자원활동가, 이용자 등의 교육은 도서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서관학교, 역량강화 워크숍, 자원봉사자 교육, 주민의 평생학습권과

관련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들이 기획돼야 합니다.

- 문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책잔치 한마당, 영화제, 작가와의 만남, 시낭송회, 음악회 등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이 도서관 사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안 하나 - 민관이 하나 되는 협의기구(도서관 정책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봉구에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정책기구와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을, 민간에서는 통로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간과 공립 작은도서관이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서로 경쟁 또는 협력을 통해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도서관 정책을 함께 마련하고, 가장 중요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교육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봉구가 민과 관의 작은도서관이 협력해 나가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내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안 둘 - 생애주기별 독서 운동,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합시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태어난 아기들이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봉구에서는 한 해 2,898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와 함께 작은도서관을 방문한 경험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첫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아이는 지역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기에 작은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 운동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50%가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시기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지원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육아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책임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도봉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안 셋 - 책을 통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책배달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책배달 서비스는 각 도서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찾아온 아이와 부모에게 책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작 다양한 책과 문화를 접해야 하는 저소득층, 장애학생,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부모 등은 도서관 활용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관이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책배달 서비스’는 대단히 공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배달 서비스는 담당자 1인이 1가정 1회 방문에 5권 정도의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단순히 배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멘토 역할을 하는 한편 해당 가정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줌으로써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제안 넷 - 도서관 지원,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우리는 1970, 1980년대에 정부 주도로 우후죽순처럼 마을도서관이 들어섰지만 그에 따른 인력과 지원 등이 없어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도서관 기능은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겪었습니다. 마을의 도서관은 도서관 건립이나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성된 도서관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과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이 짓는 것보다 하나하나를 잘 운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다. 활발하게 잘 운영되는 곳을 살펴보면 그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은 ‘공간’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운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공간’보다는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해야 합니다. 민간 도서관에도 전체 운영자와 사서에 대한 인건비와 도서 구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는 공모지원 또는 거점도서관 연계형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 다섯 - 이 모든 것은 조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속가능해야 하고, 또 책임성이 있어야 하며 시 관계자가가 바뀐다고 정책이나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전체 아래 발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때마다 정책과 내용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광역시도 3개 곳(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을 비롯해서 시군구 26개 곳(서울시:은평구, 양천구/경기도:파주시, 하남시, 광명시/전라도:순천시, 광주 북구, 광주 서구, 익산시,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경상도:마산시, 양산시, 김해시, 울산동구, 울산북구, 포항시, 고성군, 영양군, 영덕군/강원도:원주시)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마련해서 법률적 근거 아래 작은도서관이 조성되고 지원,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와 연구에 기반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거나 조례 내용이 현실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에 맞는 조례 내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별첨4_작은도서관 설립과정의 모든 것(이순임, 2006)

작은도서관 설립과정의 모든 것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엄두가 안 나요”한다.

작은 도서관 만드는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렵고 할 일도 많다. 인정과 칭찬은 아예 기대도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쉽게 생각하면 주부들 계모임 하는 것만큼이나 재밌고 신나는 한판 모험이 된다. 일본에서는 가정문고가 흔하다. 자기 거실을 여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출발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 한방에 멋진 도서관을 똑딱 만드는 일은 요술램프 속 ‘지니’가 있어도 권하지 않는다. 살림살이 하나하나 장만해가며 살림을 꾸려본 사람은 안다. 내가 이룩한 것이 진짜 내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이제 작은도서관의 원대한 꿈을 품었다면 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자, 한 발 내딛어보자!

1. 모임부터 꾸리기

혼자 공상에 젖어 천장에다 몇 번이나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지우는 과정을 겪을 텐데 그 전에 먼저 같이할 사람을 모아야 한다. 같이 그리라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도서관 문화란 이웃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작부터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유치원이나 학교 엄마들, 계모임, 부녀회, 동별모임, 취미모임 등 어떤 것이든 괜찮다. 마음에 맞는 엄마들이 모여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 모임을 하겠다고 결의하면 그 모임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2. 도심 속 작은 공간을 찾아라

초록나라도서관도 처음엔 동네 한복판에 방치된 컨테이너에서부터 시작했다. 아파트 안 관리사무실 건물이나 지하공간 같은 곳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병원, 회사, 지하철, 종교단체, 학원, 식당, 자투리땅까지 신나는 모험을 할 수 있는 몇 평 공간을 얻는 건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도서관 밑그림 그리기

밑그림(기획서)을 한번 그려보자. 한배를 탄 사람들의 목적지가 서로 다르면 배는 가라앉고 말기 때문이다. 어디로, 왜, 어떻게 갈 것인지가 합의돼야 신명나게 노를 저을 수 있다.

- 도서관을 왜 만들고 운영하는지 작성한다

- 도서관이 들어서기까지의 세부 일정과 시간표를 작성한다
- 살림살이의 규모와 예산계획서를 작성한다
- 개관 후 1~2년까지 일정을 작성하고 향후 5년까지의 계획표를 만든다
- 초기 일꾼이 꾸려졌다면 맡을 업무(예:재정지기, 운영지기, 홍보지기, 모임지기, 회원지기 등)를 나눈다

4. 운영이 잘되는 도서관을 견학하라

사명감 하나로 도서관 운동을 해온 헌신적인 사람들이 꾸리는 도서관은 가슴 따뜻하고 편하고 좋은 기운이 흐른다. 그들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그들을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아마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알려줄 것이다. 그들은 ‘동네마다 하나씩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자기 사명감 때문에, 동네 안에서 다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자기 이상 때문에 후발주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기꺼이 나누어준다.

5. 설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 창업자금 마련
- 실내디자인팀
- 좋은 책 마련
- 장서분류, 서가배치
- 자원봉사조직
- 도서대출, 회원관리
- 개관행사

6. 지속가능한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

- 이용자 곧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자
- 처지와 형편에 맞게 도서관 살림을 꾸리자
- 자립 기반을 강구하자
-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를 늘려나가자
- 사람만이 살길이다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도서관을 움직인다. 외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석 같은 단 한 사람은 백 명을 당해낸다. 사람에 대한 준비와 교육, 훈련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보석은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다.

별첨5_재미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순임, 2006)

재미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작은도서관은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성장과 삶의 풍요를 느끼고 표현해내는, 문화적 사위를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관료주의에 젖어 덩치만 키우는 도서관이 아니라 고급 문화의 향수를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장점과 주의점

○장점

- 도서관 이용자들을 더욱 많이 모을 수 있다
- 어린이에게는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습관을 길러준다
- 성인에게는 사회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 도서관 대외 홍보와 마케팅 기능을 수행한다
- 학부모와 어린이의 의사소통 공간이 된다

○단점

- 도서관 서비스에 쓰여야 할 자원을 빼앗아갈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에 치중하다 보면 도서관 본래 목적과 역할인 자료를 통한 서비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목적별 특성

○지식정보를 추구하는 프로그램

도서관 특성인 '지식과 정보의 소통 공간'이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서자료, 비도서자료(DVD/CD-ROM)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 독서교실, 미디어교실, 독서회, 작가초청 강연회 등

○공동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붕괴된 오늘날 모든 연령과 계층이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예) 전래놀이교실, 풀꽃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등

○소외된 자를 돌보는 프로그램

빈부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므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예)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장애우)를 찾아가는 무료 책배달 서비스,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실, 장애어린이 독서교실, 시각장애우 책읽어주기,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등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연령대별 특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예) 그림책/포스터 전시회, 책 속의 보물찾기, 소식지 만들기, 책잔치 한마당, 영화상영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0~36개월)

부모와 함께 생활습관, 기초언어를 익히는 시기이다.

예) 북스타트 프로그램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5~7살)

사회성과 언어, 지식을 쌓는 시기이며 독서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 책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예) 낱말에 해당하는 책찾기 놀이, 그림책 읽어주기, 표현놀이, 그림책 슬라이드, 동화구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사회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잘못된 독서습관을 바로잡고, 도서관 정보자료 활용방법을 알게 되는 시기이다.

예) 독서치료, 독서교실, 독서상담, 미디어활용 교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와 확신을 갖고 자아를 형성하며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예) 청소년 미디어 교실, 독서토론회, 역사문화기행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자아실현의 단계로 자녀문제, 부부문제, 사회생활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시기이다.

예) 자녀독서 교육강좌, 독서회, 역사문화기행, 작가초청강연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생활문제로 소홀했던 자기계발프로그램으로 욕구를 해소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기이다.

예)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우리동네 이야기, 노인독서회, 문맹자를 위한 한글교실

4.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베끼기

-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신나는 방학학교', '가을 어린이축제', '좋은 책 전시'
- 제주도 설문대도서관: '숨겨진 제주설화를 찾아서', '그림책을 빛으로'

- 복사꽃필무렵도서관: ‘꼬마가 들려 주는 동화’, ‘슬라이드로 보는 동화’
- 도란도란도서관: ‘동화 속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옛날이야기와 함께하는 책그림 대회’
- 행복한도서관: ‘책 읽는 마을 행복한 책 릴레이’, ‘독서퀴즈’, ‘독서미술치료’
- 햇살이가득한도서관: ‘인형극’, ‘음악동화’
- 사랑나무가족도서관: ‘책만들기 교실(북아트)’, ‘성인미술치료교실’
- 소나무푸른작은도서관: ‘시낭송회’
-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도서관: ‘생생한 현장체험교실’, ‘책 읽는 엄마모임’, ‘독서신문 만드는 아이들’, ‘폼앗이모임’

참고문헌

- 국가도서관통계, 2018
- 문휘, 2015,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조사보고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및 정책·운영 컨설팅 사례발표
- 박미라, 2012,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운동의 전개과정과 사회적 의미, 충남대 석사논문
- 박영숙, 2014, 꿈꿀권리, 알마
- 남태우, 2013, 도서관론, 태일사
- 박영숙, 2006, 내아이가 책을 읽는다, 알마
- 이순임 외, 2007, 치유와 키움, 이매진
- 이순임, 2006, 작은도서관 칼럼, 리빙타운
- 이용재, 2013, 도서관 인물 평전, 산지니
- 김소희, 2019,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 강의안*최순옥,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추진결과와 발전방향,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웹진
- 장세훈, 2018, 지역사회운동 조직화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알린스키 모델의 한국적 재해석, 장세훈, 한국연구재단
- 정태석, 2018, 사회학:비판적사회읽기, 한울아카데미
-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2012, 주민운동의 힘 조직화, 함께가는길
- 문휘, 2015,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조사보고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및 정책·운영 컨설팅 사례발표, 2019, 전국도서관대회

작은도서관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운영을 위한 제언

발행일_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_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_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두승빌딩 201호

전송_ 02-906-2018

메일_ 02-906-2019

홈페이지_ www.dbnpo.kr

기획_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디자인_ 인그루출판인쇄협동조합(02-954-0507)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
포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